



다시 기업가정신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03



Economy

코스피	2764.73 (-19.53)	코스닥	841.52 (-11.15)
금리 (미국 3년)	3.194 (+0.018)	환율 (원/달러)	1389.00 (+0.70) (24일)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자 제조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있다. /뉴스스

반도체 등 13대 주력품 호조세 수출 6000억 달러 역대급 예상

무협 '2024수출입평가·전망' 올해 수출 전년비 9% 증가 예상 무역수지 410억 달러 흑자 전망 IT기기·자동차·선박 선전 영향

올해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인 6900억달러를 달성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를 비롯한 IT기기 호조세에 자동차와 선박 수출 성장세가 전체 수출 증가를 주도할 것이라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4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6900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은 1.0% 증가한 6490억달러로, 무역수지는 41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과 수입을 합친 무역 규모는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런 수출 전망치는 무역협회가 지난해 말 전망한 7.5%보다 1.6%포인트 상향한 것으로, 실제 이를 달성할 경우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올리게 된다. 보고서는 올해 수출 성장의 가장 큰

동력으로 반도체를 포함한 IT기기와 자동차, 선박 등 주력 품목 선전을 꼽았다. 특히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인공지능(AI) 산업 급성장, 최대 소비 시장인 중국의 IT제품 수요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31.8% 증가할 것으로 봤다.

컴퓨터(53.0%), 디스플레이(10.3%), 무선통신기기(8.0%) 등도 글로벌 IT 경기의 빠른 회복세가 우리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트너에 따르면, 2024년 IT 기기 매출증가율은 메모리반도체의 경우 70.5%, SSD는 87.1%, 스마트폰은 7.2% 성장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한 자동차의 경우 전기차 캐즘 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차(HEV)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중심으로 3.7%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선박(14.3%)도 하반기 중 유럽, 아시아 등지로 액화천연가스(LNG)선과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인도가 예상돼 우호적인 수출 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는 세계 경기 회복세와 고급

리 기조 완화, 인플레이션 약화 등으로 점차 소비가 확대되며 우리 13대 주력 품목 수출이 대부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철강은 상반기 수출단가 하락과 수요 부진 등 불안한 수급 상황이 점차 개선되더라도 불구하고 연간으로는 -0.8%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5월까지 우리 수출은 주요국 대비 가장 빠르게 증가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상반기 흐름을 유지한다면 올해 최대 수출 실적은 물론, 양대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 최대치 달성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다만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국제유가·환율 불안, 미중 무역분쟁과 주요국의 관세장벽 강화, 해상운임 상승 등은 하반기 주요 리스크 요인"이라며 "무역협회는 수출 회복 기조를 이어가도록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무역 업계 및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 번 불 나면 연쇄 반응' 리튬전지 화재진화 난항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시신 16구 수습, 실종자도 많아
화재시 물 진압 안돼 위험성 부각

경기 화성시의 리튬전지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리튬 배터리 화재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완벽한 진화 대책이 없어서다. <관련기사 2·6면>

24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단 내 일차전자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화재 현장에서 시신 16구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불이 난 아리셀 공장 3동에 대한 내부 수색을 시작한 이후 소소한 상태의 시신 16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현장 브리핑을 통해 "구조대 본격 수색을 통해 현재까지 15구 시신을 수습했다"며 "나머지 실종자 6명에 대해서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초 실종자는 23명으로 알려졌으나 중복 사항 등이 있어 최종 실종자는 21명으로 추정됐다.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사망한 작업자는 16명이다.

아리셀은 리튬 배터리를 제조해 완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다. 2층에는 3만

5000개의 배터리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리튬 배터리 화재는 보통 열 폭주로 일어난다.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액 등으로 구성된 배터리에서 분리막이 손상되면 양극과 음극이 접촉해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한다.

이때 배터리 안에서 벤젠과 불산 등 유독가스가 나오며, 특히 열폭주 시가 연성 가스인 수소가 발생해 화재를 더 키울 수 있다.

리튬 배터리 화재의 경우 케이스에 밀봉된 상태로 물에 접촉할 가능성이 없다면 물로 냉각할 수 있다. 반면 리튬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물과 반응해 화재가 커질 수 있다. 이 경우 마른 모래와 팽창질석·팽창진주암을 사용해 차단하는 방법을 쓴다. 일반 화재에 쓰는 소화기처럼 쓸 수 있는 소화약제를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다.

업계 관계자는 "리튬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로 인해 화재 위험이 높다. 화재 시 물로 진압할 수 없다. 한 번 불이 나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번지는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화재 상황에 대한 메뉴얼이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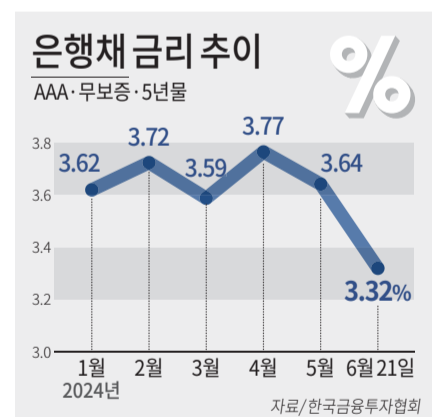
금리 내리고 규제 코앞... 가계대출 '들쭉'

주담대 금리하단 0.54%p 하락 내달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대출 수요 늘어 집값상승 우려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로 떨어졌다. 기준금리(3.5%)는 여전히 높지만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은행채 금리가 하락한 영향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여전히 가계부채가 늘고 집값상승 불씨도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지난 2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2.94~5.57% 수준이다. 지난 5월초 금리(연 3.48~5.87%)와 비교하면 하단기준 0.54%포인트(p) 낮아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한은행이 하단기준 2.94%로 2%대를 기록했고, 국민은행 3.09%, 하나은행 3.17%, 우리



은행 3.19%, 농협은행이 3.37%를 기록했다.

고정금리가 낮아진 이유는 기준금리인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시장금리가 약세를 보인 영향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정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지난 21일 기준 3.32%로 연 저점을 기록했다. 5월초 금리 3.74%보다 0.42%p 떨어졌다.

다만 고정형 금리가 2%대까지 떨어

지면서 가계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대출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오는 7월부터 예고되면서 그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뒤 금리가 상승할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부담을 감안해 한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은행의 가계대출은 6조원,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5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0월(6조7000억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주택매매 수요 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 이전에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6월까지 가계대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주담대 금리 하단이 낮아지면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부추길 수도 있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뉴스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민주, 유인촌 등 문체위 불참에 "명백한 직무유기... 입법권 침해"
- ▲ 민주 법사위 "윤석열 휴대폰 압수수색해야... 내달 통화기록 말소돼" /사진 뉴스스

- ▲ 외교부 "北 확산금융 다각화 대응 위해 동남아 협력 필수"
- ▲ 신원식, 군 잇따른 사망사고에 "부대운영 개선 등 종합대책 수립"



- ▲ 나경원 "韓·元, 대표를 대권 디딤돌로 생각... 둘 다 걱정" /사진 뉴스스
- ▲ 조국 "4년 중임제 개헌해야...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도"

‘선두’ 삼성, 더 진화된 AI vs 애플, ‘적과의 동침’도 불사

생성형 AI 대격돌

애플 AI시스템 ‘인텔리전스’에
메타 생성형 AI 통합방안 논의

삼성전자 다음달 파리스 ‘언팩’
신형 디바이스에 ‘갤럭시 AI’ 공개
빅스비에 생성형 AI 통합방안 검토

삼성과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지배할 핵심 인공지능(AI)을 두고 치열한 전쟁에 돌입했다. 스마트폰 AI 후발주자인 애플이 적대관계에 있던 메타 등 글로벌 생성형 AI 기업들과 동맹을 시도하며 시장을 탈환하려는 반전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을 선점한 삼성도 AI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오는 갤럭시 언팩에서 개선된 AI 스마트폰을 공개해 견제구를 던질 전망이다.

◆애플 자체 운영 체제에 ‘챗GPT’ 탑재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J)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자사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에 메타의 생성형 AI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애플은 메타 뿐 아니라 구글, 엔스픽, 퍼플렉시티와도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AI모델의 사용이 금지된 중국에서는 중국 AI기업과의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앞서 애플은 지난 10일 열린 ‘연례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애플 운영



지난 1월 미국 새너제이에 위치한 SAP센터에서 개최된 ‘갤럭시 언팩 2024(Galaxy Unpacked 2024)’ 행사에서 ‘갤럭시 S24 시리즈’를 소개하는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 /삼성전자

체제(OS)에 심어지는 첫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트’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자사 음성 비서 ‘시리’에 오픈AI의 챗GPT 탑재를 발표하며 향후 제휴 업체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애플의 자체 AI가 기존과 차별점이 없다는 점에서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삼성전지도 애플의 시도에 “새롭거나 획기적이지 않다”는 메시지를 띄우며 응수했다.

◆애플 적대관계인 ‘메타’와 동침

이에 애플은 자체 AI 시스템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생성형 AI 모델을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생성형 AI 모델을 자사 하드웨어 안으로 흡수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

WSJ은 “애플과 메타의 논의는 AI 시대에 주요 기술 기업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는 의외의 파트너십을 보여준

다”고 분석했다. 이는 그동안 애플이 메타와 개인정보 보호를 두고 대립을 이어온 관계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애플은 아이폰 운영체제(OS)인 iOS 14.5를 출시하며 ‘앱에 활동 추적 금지’ 선택지를 추가했다. 하지만 이같은 아이폰의 기능이 타겟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삼는 메타에 큰 손실을 안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대관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애플은 AI스마트폰으로 시장에서 밀리자 메타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삼성전자는 2024년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를 탈환했다.

특히 메타 등 AI 회사들도 애플과 협력을 통해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자사 AI 모델이 애플의 기계에 탑재된다면 유료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적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



지난 10일 열린 애플 세계개발자컨퍼런스(WWDC)에서 발표 중인 팀 쿡 CEO의 모습. /뉴스1

일각에서는 후발주자인 애플이 강력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AI 유통망을 뒤흔들 역할까지 맡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다만 WSJ은 “메타와의 논의는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결국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삼성, 메타와 협력 도모 속 개선된 갤럭시 AI 공개

삼성전지도 선두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한 전략을 도모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프랑스 파에서 열릴 언팩 행사에서 개선된 신형 디바이스와 ‘갤럭시 AI’를 공개하며 애플의 반격에 견제구를 던질 전망이다. 또 삼성은 음성 비서 ‘빅스비’에 생성형 AI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빅스비에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통합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원준 삼성전자 모바일사업부(M

X) 부사장은 지난 4월 미국 CNBC와 인터뷰에서 “빅스비에 생성형 AI를 탑재해 앞으로 더욱 스마트해질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재용 회장은 지난 미국 출장에서 AI 관련 글로벌 CEO들과 직접 만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 회장은 지난 13일까지 이어진 2주간의 미국 출장에서 AI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미래 사업 전략을 점검했다. 미국 서부 팔로 알토에 위치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의 자택으로 초청받아 단독 미팅을 갖고 AI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 2월 저커버그 CEO 방한 시 삼성 영빈관인 승지원에서 회동한 지 4개월 만으로,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와 메타도 AI 분야로 협력을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현황 등 보고해야”

금융위, 27일부터 감독규정 시행
내부통제 체계 등 확인 가능해져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신고해야 한다. 또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3개월 이내에 대주주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개정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감독규정에 따르면 우선 가상자

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를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가 신고사항에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파악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앞으로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 내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도 신고사항으로 추가한다. 대주주의 성명, 주소 등을 포함한 정보를 신고하도록 해 대주주현황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중

단 및 재개 절차도 도입한다.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심사 중단 건의 재개 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한다.

이밖에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 확인 입증금 계정’을 발급할 때 실시하는 위험 평가의 절차·방법 등은 업무 지침에 포함한다. 금융위는 이번에 바뀐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다음달 초 공개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삼성전자, 특히 231건 중소기업에 기술 나눔

8월6일까지 신청기업 접수
착용형 로봇, 디스플레이 장치 등 포함

삼성전자가 중소·중견기업들에 활용 가치가 높은 특허 231건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 기술나눔 공고’를 통해 나눔기술들을 공개하고 25일부터 8월 6일까지 신청 기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기술들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기술들 중에서 우리 중소·중견기업에 제공될 경우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231건의 특허를 선별한 것이다.

‘기술나눔’은 동반 성장 차원에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가진 미활용 우수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이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난 2013년 이후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1700여 개 중소기업에 3400여 건의 기술을 나눠준 바 있다. 2015년부터 기술 나눔에 참여한 삼성전자는 지난해까지 559개 기업에 1014건의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해 왔다.

앞선 2020년 삼성전자로부터 이미지 내 반사광 제거 기술을 이전 받은 ㈜키워드랩은 해당 기술을 적용한 카메라 렌즈 모듈 신제품을 개발했다. 해외 수출 등을 통해 2023년도 5억10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8명 신규고용도 창출한 기업으로 삼성전자 기술나눔의 우수 사례로 꼽힌다.

/허정운 기자 zelkova@

화성 화재참사, 중대재해법 위반조사 착수

고용부, 감독관들 현장 출동

경기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고용노동부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전곡산업단지에서 불

이 나 1명이 사망하고 현장에서 시신 20여구가 발견되는 등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발생 직후 경기지청장을 비롯한 경기지청 산재과장, 감독관들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현장을 살펴보는 등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는 중산본을, 경기지청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지산본)를 구성해 사고 대응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서울 주택가격, 2월부터 상승… 평균 8.2억

▶▶ 1년 ‘금리 내리고 규제 코앞…’서 계속

스트레스 DSR로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정해진 상황에서 금리가 낮아지면 한도가 늘어난다. 금리부담이 줄고 한도가 늘면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의 주택평균매매가격은 5월 기준

8억2279만원으로 2월(8억1849만원)부터 꾸준히 올랐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고정금리를 중심으로 금리가 하락하고, 서울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있어 가계대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품질·현장·글로벌’ 경영... 韓 자동차산업 새 지평

HYUNDAI
MOTOR GROUP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

정주영 선대회장이 쌀가게부터 시작해 자동차, 건설, 조선산업에 이르기까지 국내 굴지의 기업인 ‘현대’를 구축했다. 큰 틀에서 현대자동차의 밑그림을 그렸다고 보면 된다.

정 선대회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은 1990~2010년까지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며 현대차그룹을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1997년 한국 경제를 강타한 ‘IMF 사태’에도 기아(당시 기아자동차)를 흡수 합병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로 성장시켰다. ‘품질·현장 경영’의 대명사인 정몽구 명예회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세계적인 일류 기업으로 성장시킨 제 2세대 기업가를 대표하는 인물로 꼽히고 있다.

정 명예회장, 기업가 정신 ‘파격·혁신’ 품질개선 집중... 韓 자동차 인식 바뀌 현장에서 직접 뛰며 임직원 이끌어

◆ **현대차·기아, 세계적 자동차 브랜드 혁신**
현대차그룹을 세계 자동차 역사상 유례 없는 짧은 기간에 글로벌 톱 5로 올려놓은 정몽구 명예회장은 대한민국 재계를 대표하는 경영인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 그의 기업가 정신은 아직도 현대차그룹의 DNA로 작용하고 있다.

정 명예회장의 ‘품질경영’은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현대차·기아는 1990년대 후반만 해도 미국 방송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형편없는 품질로 조롱을 받곤 했다. 그러나 정 명예회장은 품질경영에 총력을 기울여 불과 10년 사이에 이런 인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정 명예회장은 현대차 경영을 맡은 1999년 수출현장 점검차 미국을 방문했다. 당시 현대차는 품질문제로 미국 소비자의 리콜 요청이 쇄도했다. 충격에 빠진 정 명예회장은 귀국하자마자 글로벌 자동차 품질조사 기관 J.D.파워에 품질 컨설팅을 받도록 지시하며 품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1999년 현대·기아차의 ‘품질경영’

은 ‘그레이스 슬라이딩 도어 사건’의 영향이 컸다. 당시 정 명예회장은 당시 울산 공장을 갑자기 방문해 조립이 끝난 승합차 그레이스의 슬라이딩 도어를 20여 차례 힘껏 여닫고, 결국 문이 슬라이딩 레일에서 이탈하자 “처음부터 다시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후 현대·기아차는 품질에 문제가 있으면 곧바로 생산라인을 세웠고, 신차 출시도 품질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정을 연기했다.

이후 정 명예회장은 파격 마케팅을 통해 세계 자동차의 본고장 미국에서 품질을 인정받게 된다. 바로 ‘10년 10만 마일 워런티(보증수리)’다. ‘2년 2만4000마일 워런티’가 일반적이던 시절이어서 현대차의 마케팅은 파격적이었다. 시행 초기 토요타·혼다 같은 일본 경쟁사들은 ‘미친 행동’이라며 현대차를 비웃지만 그 결과는 대성공했다. 일본차들도 현대차를 따라 품질보증수위를 높이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2004년에는 ‘쏘나타’가 미국 J.D.파워 품질조사에서 일본 토요타를 제치는 쾌거를 이뤘다.

◆ **현대차그룹 글로벌화**

제품의 품질에 자신감을 얻은 정 명예회장은 전 세계로 영토 확장에 속도를 높였다. 현대차그룹의 글로벌화하는데 정 명예회장은 선두에서 임직원을 이끌었다.

정 명예회장은 ‘현장 경영’을 통해 안정적인 글로벌 생산 포트폴리오를 수립하고 수많은 자동차산업 위기에도 현대차그룹이 생존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정 명예회장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해외공장 건설에 대한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결단으로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등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대

륙에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해 고도 성장과 위기에 강한 체계를 창출했다.

전 세계 균일한 고품질의 생산공장을 적기에 건설할 수 있는 표준공장 건설 시스템도 확립하고, 전 세계를 발로 뛰며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현장경영을 펼쳤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미국과 유러브 중국 등 주요 시장은 물론 신흥 시장까지 빠른 속도로 생산기지를 구축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 명예회장 체제 하에서 개발한 표준공장 건설 시스템이 꼽힌다. 전세계 공장에서 균일한 고품질의 생산공장을 건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기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던 것이다.

세계 곳곳을 발로 뛰며 현대·기아차 거점의 생산품질과 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현장경영’ 역시 정몽구 리더십의 특징 중 하나였다.

2011년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자동차시장 위축 당시 여러 차례 유럽을 찾아 ‘위기의 진원지인 유럽에서 돌고구를 찾아야 한다. 유럽에서 길을 찾으면 글로벌 시장의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다’며 임직원들을 독려했다.

일본 업체들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반격에 나서 2012년에는 미국을 찾아 “경쟁업체들의 물량공세나 할인공세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까지 현대차·기아가 지속해온 ‘제값 받기’ 정책을 통한 경영 내실화 강화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2016년에는 러시아, 슬로바키아, 체코, 미국, 중국 등 한 달여 사이에 5개국을 오가는 강행군을 펼치며 왕성한 열정을 과시하기도 했다. 당시 정 명예회장이 3개월 간 현장 경영을 위해 이동한 거리만 4만4000km

에 달했다.

◆ **미래 먹거리 준비**

현대차그룹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순혈주의’ 전통이 강했지만 정 명예회장은 이같은 인사 정책을 과감하게 버렸다.

2000년대 초반 전 세계 시장에 기술력을 입증하며 회사 브랜드를 끌어올린 정 명예회장은 발빠르게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미래 먹거리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정 명예회장이 현대차·기아를 이끈 이후 최초로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는 전 세계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닌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려 한다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디자인 강화에 나선 것이다.

정 명예회장은 BMW의 크리스 벅글, 아우디의 월터 드 실바와 함께 유럽 3대 자동차 디자이너에 꼽히는 피터 슈라이어를 2006년 기아차 디자인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예감은 적중했다.

기아차는 2006년 피터 슈라이어의 영입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기아차는 제대로 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구축하지 못했으나 피터 슈라이어는 이른바 ‘호랑이 코그탈’을 통해 패밀리룩을 탄생시켰다. ▲깔끔한 외관이 돋보이는 K3 ▲수입차를 연상케 하는 K5 ▲강인한 외관이 인상적인 K7 등이다. 그의 부임 후 기아차는 ‘레드닷 디자인상’을 5년 안에 무려 10개의 차종에서 수상했다.

전 대륙에 생산 네트워크 구축 유럽 등 우수인재 영입 승부수 현대차그룹, 글로벌 완성차 톱 5 도약

그러나 정 명예회장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벤츄리 전 수석 디자이너 출신의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이너 루크 동커볼케 현대차디자인센터 수장(전무급)으로 영입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부터 일하게 된다. 벨기에 출신인 동커볼케는 23년간 자동차 업계에서 일해왔다. 최근에는 벤츄리 수석 디자이너로 활동했다.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3회, ‘올해의 유럽 디자이너상’ 15회 등을 수상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동커볼케는 내년 상반기 현대차에 합류해 제네시스 및 현대차 디자인을 이끌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정 명예회장이 지휘봉을 잡을 당시 계열사 10개, 자산 34조원을 보유했다. 하지만 정 명예회장이 이끌면서 현대차그룹은 2020년 계열사 54개, 자산 248조원을 보유한 글로벌 자동차 회사로 성장했다. 정 명예회장은 현대차그룹의 역사를 이끈 주역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지난 2005년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공장 쏘나타 생산 품질을 점검하고 있는 정몽구 명예회장.



2006년 현대차 인도공장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는 정몽구 명예회장.



2014년 현대차 앨라배마공장을 방문해 생산 품질을 점검하고 있는 정몽구 명예회장

팬덤 보유, 게임 진출... 귀요미 캐릭터, 미래 먹거리 '낙점'

롯데홈쇼핑 '벨리곰'

2년간 수익 200억... 게임 론칭도

현대백화점그룹 '힌디'

15m 초대형 힌디 설치, 포토존 마련

신세계그룹 푸빌라

佛 이사와 스키주제 협업상품 선보

유통가가 캐릭터 IP사업 확장에 속력을 내고 있다. 실제 가시화된 성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유통업계는 캐릭터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그룹 전체 사업으로 확장시키는 분위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 현대, 신세계 등 유통 3사는 각 사 캐릭터를 필두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각각 벨리곰, 힌디, 푸빌라가 해당 주인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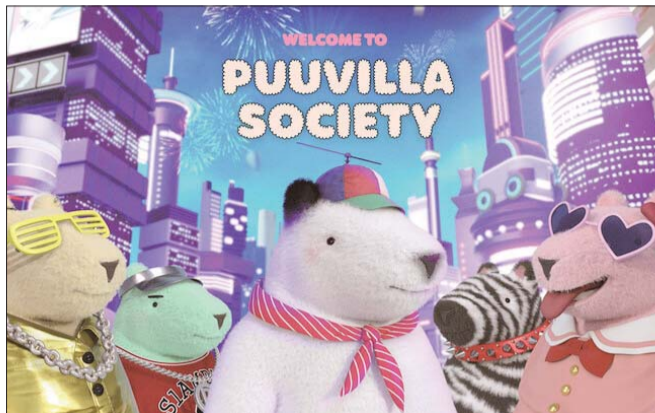
유통가는 장벽을 허물고 전 세대에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방법으로 캐릭터 마케팅을 시작했다.

과거 굿즈 정도에 머물렀다면 최근엔



벨리곰.

/롯데홈쇼핑



신세계그룹의 푸빌라 캐릭터.

/신세계

전 그룹 계열사들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중 롯데홈쇼핑이 기획한 '벨리곰'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실제 2018년 탄생한 벨리곰이 거둬들인 수익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2년간 200억원 이상이다. 벨리곰 공식 유튜브는 해외 시청자들이 40%로 기록되면서 캐릭터의 인기를 실감했다. 롯데

는 벨리곰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외 마케팅을 하고 있는 셈이다.

170만 팬덤을 보유한 벨리곰은 유튜브 활동으로 인지도를 쌓은 후 2022년 초대형 공공전시를 계기로 팝업, 굿즈 판매 등 오프라인으로 활동을 확대하며 국내 대표 캐릭터로 성장했다. 올해 매출액 전년 대비 20% 이상 신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롯데홈쇼핑의 벨리곰은 유통사 최초 캐릭터 IP를 활용해 게임시장에 진출한다.

최근 벨리곰 IP를 활용해 유통사 최초로 캐릭터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은 큰 주목을 받았다. 올해 7월 영국에서 1차 게임 출시를 시작으로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잇달아 선보인 이후 9월 국내 시장에 정식 론칭한다. 향후 일본, 유럽, 북미 등으로 론칭 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엔 코레일과 협업해 벨리곰의 노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강아지 캐릭터인 '힌디'라는 자체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다. 힌디는 최근 편의점까지 진출했다. 현대백화점이 BGF리테일과 손잡고 힌디로 디자인된 젤리를 선보인 것. 이는 백화점이라는 공간을 벗어나 외부 유통 채널에 진출하는 첫 사례다.

힌디는 현대백화점이 고객들과 '순간의 행복을 기억하자'는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흰색 강아지를 모티브로 2019년 처음 선보인 자체 캐릭터다.

현대백화점은 힌디 공개 후 굿즈와 다양한 온·오프라인 테마 행사에 활용해 왔다. 더현대 서울을 비롯한 주요 점포에 높이 15m 초대형 힌디를 설치해

이색 포토존을 마련하는가 하면 유명 작가들이 참여해 행복을 주제로 힌디 세계관을 소개하는 일러스트 전시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오픈한 더현대 프레젠테에서는 힌디 디자인을 적용한 인형, 키링, 텀블러, 티셔츠 등 굿즈를 선보이고 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자체 캐릭터를 직접 개발하고 라이선싱 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 개발과 외부 협업이 가능하다"며 "향후에는 힌디 IP 기반의 2차 저작물을 더욱 다채롭게 선보일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스타트업과 적극적으로 협업하며 더 많은 고객들이 힌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세계그룹은 최근 프로야구단 SSG 랜더스의 굿즈에 활용되면서 인기몰이 중인 푸빌라라는 캐릭터가 있다.

신세계 그룹은 푸빌라를 통해 브랜드와의 협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신세계백화점은 프랑스 킨뎬포르리 브랜드 이로우 스키를 주제로 한 가을·겨울 시즌에 이어 올해 봄·여름 푸빌라 협업 상품을 선보이면서 이목을 끌었다.

신세계그룹은 푸빌라 외에도 계열사별 자체 캐릭터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신세계푸드의 경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모습을 모티브로 해 '제이릴라' 캐릭터를 제작하고 실제 2021년 '유니버스 바이 제이릴라' 베이커리와 제이릴라 캐릭터를 활용한 골프복을 출시했다.

신세계그룹 측은 "제이릴라와 푸빌라를 활용한 IP 사업 매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도 자체 캐릭터 IP 사업 비중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그룹 계열사와 연계해 응용 마케팅도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금용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세를 갖기 위해

68개월 27일을 투자했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당신의 투자 ▶ 문화가 된다 ▶

NH투자증권

K팝 아이돌이 하면 매출 ↑... 日 '디토' 열풍

큐텐재팬, 메가와리 '무브'서 K셀러 바질제품 이달 판매량 3월보다 156%, 전년비 44% 상승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의 스타일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여 소화하는 '디토(Ditto)' 소비가 일본 MZ세대 사이에서도 빅 트렌드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K팝 아이돌이 착용만 하면 매출 상승으로 직결되는 등 일본 내 K패션 시장이 K문화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패션 브랜드 '바질(VARZAR)', 영클래식 브랜드 '로라로라(rolarola)'를 비롯해 '와이케이(WaiKei)', '키르시(KIRSH)', '잇자바이브(ITZAVIBE)', '레인세인(P:ReinSein)' 등이 있다.

이베이재팬이 운영하는 온라인 오픈마켓 '큐텐재팬'이 최대 할인행사 메가와리(6/1~6/12)에서 하이퀄리티 패션 서비스 '무브(MOVE)'의 K패션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K셀러 바질 제품 판매량이 지난 3월(1일~12일) 행사 대비 2배 이상(156%) 크게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작년 6월과 비교해서도 44% 상승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바질은 한국 내 유명 셀럽 및 패션 관

련 인플루언서들이 애용하는 브랜드로, 트와이스와 BTS 등 많은 연예인들의 착용 이슈까지 더해져 일본 내에서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한 K 패션 브랜드다.

바질의 대표 상품 '스터드 로고 오버핏 볼캡'의 경우 누적 매출 60억원, 상품 리뷰수 2만2000개 이상 등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바질은 이번 6월 행사 기간 12일 동안 2억엔의 판매고를 올렸고, 대표 상품이 '무브' 패션 카테고리 전체 1위를 차지하는 등 일본 내 K패션 인기를 주도하고 있다.

와이케이, 키르시 아이템도 라이즈(RIIZE), 아일릿(ILLIT) 멤버가 착용하며 일본에서 K팝 스타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다.

와이케이의 경우 6월 메가와리 기간 제품 판매량이 전년 행사 대비 47%, 직전 3월 행사 대비 2배(100%) 증가했다. 키르시의 대표 제품 '키르시 반소매 티셔츠 세트'는 이번 메가와리 행사 기간 중 '무브' K패션 랭킹 3위에 올랐다. 키르시는 티셔츠 인기에 힘입어 이번 행사 기간 중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직전 행사 대비 61% 증가했다.

/최빛나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예금과 주식 사이
그 곳에,
채권이 있습니다

SOL

SOL

채권도 신한투자증권

변동성 높은 투자환경

주식도 꺼려지고, 예금도 꺼려지는 시장상황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주목할 만한 투자 트렌드, 채권!

국공채, 우량채권도 신한투자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신한 SOL증권,
온라인에서 쉽고 간편하게
채권 매매하세요

상담전화 : 1588-0365 | www.shinhansec.com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채권>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 <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안내는 청약의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청약의 권유는 (예비, 간이)투자설명서에 따릅니다. ※ 채권은 발행사의 신용등급 하락 시 원금손실 발생이 가능하고, 발행사의 파산·부도 시 원금 100%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 각 +,0,- 순으로 구분) ※ 채권은 시황 및 경과기간 등에 따라 수익률과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3-2205호(2023년 12월 13일~2024년 11월 30일)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4635호(2023년 12월 22일~2024년 11월 30일)

與, 7개 상임위원장 자리 수용키로 “野” 의회독재 막기 위해 원내투쟁

추경호, 비공개 의원총회서
7개 상임위 수용 안전 상정
안전 추진 받은 뒤 사의 표명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키로 했다. 22대 국회 출범 25일 만에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원내에서 대야(對野)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 수용을 안전으로 부처 의원들의 추인을 받았다. 추 원내대표는 이 같은 결정을 의원들에게 추진받은 뒤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면서 “원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석수 비율에 따른 7개 상임위원장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의회독재를 막기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대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고전분투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애초부터 원구성 여야 대화와 협치 국회정상화에는 관심이 없었다. 협상하는 척 소만 반복해왔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후 대국민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이어 “절대 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주당과 원구성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작금의 상황이 분하고 원통하다. 저 역시 누구보다 싸우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 과방위 등 11개 상임위가 무소불위로 민주당 입맛대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나머지 7개 상임위도 정쟁으로 이용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국가의 안보, 미래의 먹거리, 나라의 재정을 책임지는 상임위도 민주당 손아귀에서 주물러진다면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쪽방촌, 교실, 중소기업 애환을 들으면서 국민의 삶을 구

석구석 챙기는 게 정치의 본령임을 깊이 가슴에 새겼다”며 “정쟁만 일삼는 민주당과는 달라야 한다. 오로지 민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탄핵으로 겁박하고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비판·견제 기능까지 형해화시키려는 민주당의 오만함에 맞서 더 처절하고 치열하게 싸우겠다”며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를 수용함에 따라 이번 주 본회의에서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여성가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위 등 7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野 “순직해병 1주기 전 특검법 반드시 통과”

李 “핵심 당사자들, 증인선서 거부尹, 이번만은 거부권 남용하지 말 것 특검 실시하라는 국민의 명령 이행”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 청문회에서 특검의 필요성이 더 뚜렷해졌다고 고(故) 채 해병 순직 1주기 전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사람의 격노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 박정호 대령이 청문회에서 한 말 한마디에 채 해병 사건의 모든 진실이 담겨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은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거짓말하면 처벌받는다”는 선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놓고 거짓말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2대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실천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부드린다. 이번만은 거부권 남용하지 말라”며 “한 사람의 격노로 엉망진창이 된 상황을 이제라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중단하고 상황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절대다수가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자격이 있나”라며 “민주당은 신속하게 특검을 실시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순직해병 사건 1주기 전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법은 법사위 입법 청문회가 열린 지난 21일 밤 늦게 여당 위원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야당 주도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주 본회의 개최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법은 무난히 처리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로 보인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막판 본회의에서 통과된 순직해병 특검법안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았다.

특검법안은 ▲채 해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경복경찰청, 국가인권위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한 불법행위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출국, 귀국, 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수사한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선정해 총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은 20일간의 직무수행 준비기간이 만료된 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박태홍 기자 pth7285@

與 4파전에 ‘눈길’ vs 野 이재명 연임 전망

與, 한동훈 ‘무난한 당선’ 예상
친윤계 지목 따라 양상 달라질 수도
野, 李 당 대표직 사임… 출마 여부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외에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나경원·윤상현 의원의 4파전이 되면서 흥행 조짐이 보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재명 대표가 사임하면서, 이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전당대회로 인한 ‘컨센션 효과’는 여당에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어대한(아차피 대표는 한동훈)’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당권도전 선언을 한 인사들이 늘어나면서 선거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다는 예측도 있다.

여권 인사들은 전반적으로 한 전 위원장의 ‘무난한 당선’을 예상한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나 당내 지지도, 인지도 등에서 앞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당대회 구도가 ‘한동훈 vs 반(反)한동훈’이 되면서, 친윤(친윤석열)계가 차기 당대표로 누굴 지목하는지에 따라 전당대회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전날(23일)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 당정이 ‘원팀’이 되어 한다고 강조

해 눈길을 끈다. 원 전 장관이 ‘당정일체’를 이뤄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친윤의 시선이 이쪽으로 모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BBS라디오에서 “(차기 당 대표는) 3년 후 대선에서 당정 일체를 강조하는 게 당원들의 생각에 부합할지, 아니면 권력 재창출을 위해 당정 관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지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면 민주당은 ‘또대명(또대표는 이재명)’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대항마로 거론되는 인물도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당 대표직을 사임했다. 8월 18일에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한 행보로 풀이된다. 만일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 민주당 역사상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사임을 발표하며 “개인적으로 당이나 전체 입장에서 제 개인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지금 상태로 임기를 마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사임으로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

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를 띄울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전당대회 두달 전쯤에 출범하는 걸 감안하면, 이번에는 이 대표의 사임 결정이 늦어지면서, 일정이 밀린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이 대표의 연임이 예상되자 정치권에서는 여당의 전당대회에 더 시선이 갈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의 경우 이 대표 외에 거론되는 인물은 비명계 5선 이인영 의원인데, 실제 당 대표 경선 출마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최창렬 교수는 국민의힘은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참여해 흥행 요소는 갖췄다면서 “적어도 민주당에 비해서는 흥행이 된다고 본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들이) 어떻게 서로 비판하고 이슈를 내야 따라 흥행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맥 빠진 전대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당대회의 흥행은 당의 현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당대회가 주목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당이 현재 위기에 처해 있다는 증거”라면서 “4명의 후보가 나왔지만 흥행이 아니라 이번 대표의 임기는 얼마나 되느냐는 자조가 나오는 마당에 흥행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서예진 기자

尹 “배터리공장 화재 인명수색·구조 총력”

“소방대원 안전에도 철저히 기하라”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경기 화성시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데 대해 인명 수색 및 구조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화성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이 같이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철저히 기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1분쯤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전곡산업단지에서 입주해 있는 일차 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50대 남성 한명이 전신 화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또 1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불이 난 후 공장 내부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인원은 20명 안

팠으며 추정돼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2018년 준공된 이 공장에는 약 5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다. 인명피해 및 연소 확대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했다.

현재 인력 150명과 장비 50대를 동원해 화재 진화에 나서고 있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화재 초기 내부에 있던 배터리 셀이 연속 폭발하며 급격히 불이 번져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재 구조 대원이 내부로 들어가 수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최소 3만 5000여개의 배터리가 (공장 안에) 있는 것으로 추정돼 추가 폭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예진 기자



위의 QR코드를 찍어보세요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미래 AI 세상이 펼쳐집니다

AI와 미래를 잇는 코드 SK하이닉스로부터

미래 AI 인프라의 핵심, 글로벌 No.1 AI 메모리 기업

We Do Technology | SK hynix

DGB금융 '시중금융지주' 전환 1개월

전국 영업점 확충 목표... 비은행 부문 수익성 개선 과제

지방금융 기존 이미지 탈피 주력
3년간 'iM뱅크' 영업점 14개 설치
비대면 특화로 점유율 확보 가속
부동산 PF부실 여파 수익성 악화
보험 등 포트폴리오 확대 관측도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 /DGB금융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따라 시중금융지주로 재출범한 DGB금융이 전환 1개월을 맞았다. 시중은행으로 재출범한 iM뱅크(옛 DGB대구은행)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영업 확대에 집중하는 가운데 DGB금융의 향후 전략 및 당면 과제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은 지난 5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iM뱅크' 재출범에 발맞춰 일부 계열사를 제외한 전 계열사의 브랜드명을 기존 'DGB'에서 'iM'로 일괄 교체하고 iM뱅크의 전국 단위 영업을 개시했다.

시중은행으로 재출범한 iM뱅크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고객 유치 및 'iM' 브랜드 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수신(예금·적금 등을 통해 고객의 돈을 받는 영업 행위) 부문에서는 최고 연 4.15% 정기예금, 연 20% 초단기 적금 등 비대면 전용 상품을 앞세워 고객 유

치에 나섰고, 카드·연금·해외 송금 등 금융 서비스에서도 수수료 면제 등이벤트를 앞세워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대구·경북에 거점을 둔 지방금융'이란 기존 이미지를 벗어나 지역별 거점 영업점 설치에 앞서 점유율을 확보한다는 포석이다.

앞서 DGB금융은 금융당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통해 향후 3년간 14개의 iM뱅크 거점 영업점을 전국에 설치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관계형·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개인금융 부문에서는 내·외부 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비대면 플랫폼 특화 상품에 집중하는 한편, 기업금융 부문에서는 1인 지점장 제도인 기업금융전문가제도(PRM)를 확대해 전국의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뉴 하이브리드 뱅크' 전략의 일환이다.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은 "뉴 하이브리드 뱅크 전략은 관계형 영업을 통해 점유율을 조금씩 가져오는 전략으로, 시중은행의 박리다매 전략과는 완전히 다른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DGB금융의 당면 과제로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의 여파로 악화된 비은행 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꼽힌다.

앞서 DGB금융은 지난 1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1분기 대비 563억원(33.5%) 감소한 111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비이자 이익이 감소하고, 대손충당금을 쌓았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 DGB금융의 비이자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674억원(34.7%) 감소한 1266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손충당금은 1104억원에서 481억원(43.6%) 늘어난 1585억원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DGB금융이 비은행 부

문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 인수나 보험 포트폴리오 확대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DGB금융이 등록한 상표에 'iM 저축은행' 및 'iM손해보험' 등이 포함됐고, DGB금융이 기존에 저축은행을 보유하지 않은 만큼 영업 구역에 따른 저축은행 인수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 PF 여파로 저축은행권의 업황이 크게 악화된 만큼, DGB금융이 단기간 내에 저축은행 인수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DGB금융 관계자는 "iM뱅크가 최근 시중은행으로 재출범한 만큼 현재는 그룹 역량을 iM뱅크에 집중하고 있다"며 "iM저축은행, iM손해보험 등 상표명은 브랜드 선점 차원에서 등록한 것으로, 현재 논의하고 있는 인수 건은 없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우리금융, 롯데손보 본입찰 검토... 가격이 관건

"과도한 가격 지불 없다" 기본원칙
2조 웃돌면 유찰 가능성 배제 못해

우리금융그룹이 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 인수 실사를 마치면서 본입찰 참여를 검토 중에 있다. 비은행 강화가 절실한 우리금융은 지분까지 이상의 오버페이(과다지급)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입찰예상가는 1조5000억~1조8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전략 부문사업 포트폴리오부는 지난주 롯데손보의 실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8일 본입찰 참여를 위해 검토에 들어갔다.

매각 대상은 최대주주 JKL파트너스가 보유한 지분 77%에 경영권 프리미엄, 보험계약자산(CSM)까지 더해 매각 희망가는 2조~3조원으로 알려졌다. 현재 롯데손보 시가총액은 1조2300억원

대다.

우리금융이 롯데손보 인수 검토에 나선 것은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서다. 지난해 순영업수익 중 이자이익은 89%, 비이자이익은 11%다.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의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비은행 부문 강화를 모색 중이다.

우리금융의 레버리지 비율은 올해 1분기 96%로 금융당국의 관리 기준 130%와 비교하면 자회사 지원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다. 우리금융의 자본총계와 자회사 출자총액을 고려하면 최대 7조5000억원 가량의 추가 출자도 가능하다. 하지만 과도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성욱 우리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과도한 가격은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JKL파트너스가 2조원을 웃도는 매각가격을 제시할 경우 다수 인수 희망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해 본입찰이 유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국계 사모펀드들도 인수 후 재매각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2조~3조원에 육박하는 매각가는 부담되는 가격이다. 또한 매도자 측이 기업가치를 보다 높게 평가받기 위해 외국계 사모펀드를 원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호황기도 아니고 롯데손보가 손보업계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하는 가격에 매각이 이뤄질 지 관심이"라며 이어 "우리금융의 경우 1조9000억원까지 배팅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

AI 수출환 어음매입 전산 자동화 서비스

하나은행, 자체개발 기술 도입
오류 최소화, 업무 편의성 증대

하나은행이 인공지능(AI) 수출환어음매입 전산 자동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AI 수출환 어음매입 전산 자동화 서비스는 하나금융티아이의 사내 독립기업인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의 자체 개발 AI 기술을 도입해 마련됐다.

AI 수출환 어음매입 전산 자동화 서비스는 정형화되지 않은 수출 서류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매입 정보 등 핵심 데이터를 디지털로 빠르게 추출한다. 기존 수기 작성 방식에서 발생했던 오

류를 최소화 함으로써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하나은행은 AI 수출환어음매입 전산 자동화 서비스를 시작으로 자체 개발한 AI 기술인 '리딧(READIT) v3.0'을 활용해 AI 기반의 수출 서류 심사 및 수출 서류 작성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외환사업지원부 관계자는 "수출업무 분야에 자체 기술을 적용한 금융권 첫 사례가 되어 뜻 깊다"며, 앞으로도 "수출입 업무의 디지털화 확대를 통해 기업의 수출입 거래 편의를 위한 혁신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금호건설, 대전서 2703억 규모 대단지 아파트 수주

대전대동2 주거환경 개선사업
1420세대 공동주택 건설공사



대전대동2 주거환경 개선사업 1·2블록 공동주택 건설공사 및 조성공사 조감도. /금호건설

금호건설은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대전대동2 주거환경 개선사업 1·2블록 공동주택 건설공사 및 조성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대전대동2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대전광역시 동구의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화되고 열악한 주거·기반시설 등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4557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금호건설(주관사)이 DL이앤씨, 계룡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주택을 시공한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은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어 주민 복지증진과 도시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금호건설이 수주한 '대전대동2 주거환경 개선사업 12블록 공동주택 건설공사 및 조성공사'는 대전광역시 동구 대

동 33번지, 용운동 일대에 지하 2층 ~ 최고 지상 35층, 19개동 총 142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사다. 1블록은 1130세대로 단지 서쪽에 위치하고 2블록은 단지 동쪽에 209세대로 구성된다. 총 공사비는 2703억원으로 공사기간은 52개월이다.

1·2블록에 들어설 1420세대는 전체 공공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전용면적 59㎡와 84㎡로 구성된다.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민간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책정돼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청년, 생애 최초 구입자 등 주택 공급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높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



24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디지털전략 자문위원회를 출범 후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 총괄변호사(왼쪽부터), 주재걸 카이스트 AI대학원 교수, 정재호 농협은행 디지털전략사업부문 부행장, 안현실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농협은행

NH농협은행, 디지털 전략 자문회 출범

NH농협은행은 급변하는 디지털 신기술과 시장 환경에서 고객에게 더욱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디지털 전략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

디지털 전략 자문위원회는 정재호 디지털전략사업부문 부행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법률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구성했다.

자문위원으로는 안현실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 총괄변호사,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 주재걸 카이스트 AI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이날 첫 자문위원회에서는 농협은행의 생성형 AI 도입방안과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고도화 계획을 안건으로 다뤘다. 이를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문을 수행했다.

/이승용 기자

2분기 정제마진 하락세 전환 정유업계, 실적개선 더더지나

2분기 정제마진 6.9 달러
휘발유 등 국제유가 하락 영향
업계 “전반적 실적 하락 예상”

1분기 흑자전환을 이뤄냈던 정유업계에 수익성에 다시 수익성 악화에 직면했다. 최근 반등세를 보였던 정제마진이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제마진이 지난 1분기 배럴당 12.7달러에서 2분기 6.9달러로 크게 축소됐다. 정제마진은 원유를 정제해 나온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에서 운영 및 원자재 비용을 뺀 가격이다. 정제마진이 높을수록 정유사가 그만큼 많은 이익을 남긴다는 뜻이며 통상 5달러 안팎을 손익분기점으로 평가한다.

국제 유가도 1분기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였으나 지난 4월부터 하락세를 이어가며 6월 81.8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유가의 하락은 정유업계의 재고평가 손실로 이어진다. 보통 국내 정유사들이 원유를 수입해 정

제할 때까지 3개월~4개월 정도 시일이 소요되는데 해당 기간 동안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비싸게 산 원유를 싸게 파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유업계는 지난 1분기 정제마진의 강세로 수익성이 대폭 확대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올 1분기 매출 18조8551억원, 영업이익 624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보다 매출은 1.5%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66.6% 급증했다. 에쓰오일도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54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1.9% 감소했지만 직전분기 564억원 영업손실을 냈던 것과 비교하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HD현대오일뱅크 역시 유가 및 정제마진 상승으로 매출 7조8788억원과 영업이익 3052억원을 기록,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6.5%, 17.8% 증가했다. GS칼텍스도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조8569억원으로 전년 대비 0.1%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41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8% 급증했다.

1분기 수익 청신호가 무색하게 증권사들은 정유사들이 2분기에 실적 하락

을 맞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 등에 따르면 에쓰오일의 매출액은 1분기 9조385억원에서 8조8000억원으로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이익은 약 4500억원으로 예측된다. SK이노베이션 정유부문의 경우 1분기 5911억원에서 2분기 1725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의 실적 또한 부진일 것으로 전망된다.

휘발유 가격의 지속하락도 정유업계의 수익성 개선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제마진과 마찬가지로 국제유가의 상승세에도 시장 수요 감소로 휘발유 값이 내림세를 보이는 중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1648.7원으로 직전 주 대비 리터당 6.0원 감소했다.

업계관계자는 “현재 경유 마진이 크게 하락하면서 정제마진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정유업계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이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LG디스플레이, 노트북용 탠덤 OLED 양산

기존 OLED 대비 소비전력 40% 저감

LG디스플레이가 성능은 높이고 소비전력은 줄인 탠덤(Tandem)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로 노트북용 OLED 시장 공략에 나섰다.

LG디스플레이는 업계 최초로 노트북용 13인치 탠덤 OLED 패널 개발을 완료하고 최근 양산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가 2019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탠덤 OLED는 레드·그린·블루(RGB) 유기발광층을 2개 층으로 쌓는 방식으로 장수명, 고휘도를 구현해 기존 1개 층인 OLED 패널 대비 내구성과 성능이 뛰어나다.

OLED 소자에 가해지는 에너지를 분산시켜 보다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 품질 기준이 까다로운 차량용 OLED에 처음 적용됐으며, 노트북, 모니터, 태블릿 등 화면 사용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IT 제품에도 최적화된 기술로 평가받는다.

노트북 패널에 탠덤 OLED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모델이 노트북용 탠덤 OLED 패널을 소개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이는 노트북 사용 환경에 맞춘 탠덤 OLED를 새롭게 개발했다.

노트북용 탠덤 OLED는 기존 OLED 패널 대비 수명은 2배, 밝기는 3배까지 향상시킬 수 있고, 소비전력은 최대 40% 저감 가능해 일반 노트북뿐 아니라 AI 노트북 등 고성능 IT 기기에도 최적이다.

이번에 양산을 시작한 13인치 탠덤 OLED 패널은 부품 설계 및 구조 개선 등을 통해 기존 노트북용 OLED 대비 약 40% 얇아지고, 28% 가벼워져 날렵한 디자인을 구현하고 휴대성을 높일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다보스포럼 이끈다

세계경제포럼 공동의장 추대
하계 연차총회 기조연설 예정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사진)이 한국 기업인 최초로 하계 다보스포럼을 이끄는 공동의장에 선정됐다.

LG화학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중국 다롄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2024 뉴챔피언 연차총회(Annual Meetings of New Champions)에 신학철 부회장이 참가한다고 24일 밝혔다.

‘성장을 위한 다음 개척지(Next Frontiers for Growth)’라는 주제 아래 열리는 이번 총회는 기업, 정부, 학계 등의 글로벌 리더 1500여명이 참석하여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발전, 경제 성장, 에너지 전환과 진화하는 산업 트렌드에 맞는 전략 구축, 탄소 중립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미래를 위한



행동 유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신 부회장은 보르제 브렌데 세계경제포럼 총재의 추대를 받아 ‘뉴챔피언 연차총회’의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여한다. 한국 기업인이 공동의장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공동의장은 원슈강(Wen Shugang) 중국 화능그룹(Huaneng Group) CEO, 첸이팅(Bonnie Chan Yiting) 홍콩증권거래소(HKEX) CEO, 아미나 모하메드(Amina J. Mohammed) 유엔(UN) 사무부총장 등 10여명의 글로벌 리더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신 부회장은 산업 에너지 혁명(Industry's Energy Revolution) 세션에서 재생에너지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인 배터리 소재 차세대 기술에 대한 기조 연설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세계경제포럼은 신 부회장을 산업계의 구루(Guru)로서 AI, 에너지,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들이 참여하는 세션의 단독 연사로 추대했다. 이 세션에는 유니콘부터 시리즈 A까지의 리더 스타트업 CEO들이 참여해 신 부회장과 기업 경영부터 리더십, 산업 트렌드를 논의한다. 신 부회장은 이 세션에 한국 기업인 최초로 단독 연사로 추대되었다.

신 부회장은 한국 화학 기업 대표로서 중국 리창(Li Chang)총리와 중국 국영 석유회사 시노펙(Sinopec) 등 주요 글로벌 리더들과 만나 글로벌 경제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신 부회장은 “LG화학은 화학첨단 소재 산업 분야부터 AI, 에너지,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리더들과 협력해 전지 소재, 친환경 소재 등 3대 신성장동력 비즈니스로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현대차 ‘파이क्स 피크 힐클라임’ 출전

아이오닉5N, 양산형 전기차 부문 신기록

안정성 등 전기차 기술력 입증

현대자동차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안방에서 전기차 기술력을 과시했다.

현대자동차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린 ‘파이क्स 피크 힐클라임’에 출전해 양산형 전기차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름 위의 레이스’라고 불리는 파이क्स 피크 힐클라임은 1916년 처음 시작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모터스포츠로 로키산맥의 파이क्स 피크 봉우리를 오르내리며 차량의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는 유서 깊은 대회다.

해발 2862m에서 경기를 시작해

4302m에 위치한 결승선까지 총 길이 19.99km의 오르막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56개의 굴곡진 코너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차량의 성능뿐만 아니라 내구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완주할 수 있는 높은 난이도를 요구한다.

현대차는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5N’을 활용한 차량으로 양산형 전기차 SUV·크로스오버 및 비개조 부문에 참가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모터스포츠 활동을 통해 N 브랜드의 기술력을 알리고 이를 통한 기술 개발로 고객들이 원하는 차량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한국엔컴퍼니, ‘드라이브’ 전시관 운영

부산모빌리티쇼 참가… 현장 소통

한국엔컴퍼니가 2024 부산모빌리티쇼에서 모터컬처 브랜드 드라이브(DRIVE) 전시관을 통해 고객 소통을 강화한다.

한국엔컴퍼니는 오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진행되는 ‘2024 부산 모빌리티쇼’에서 모터컬처 브랜드 ‘드라이브(DRIVE)’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드라이브와 모터컬처 패션 브랜드 ‘슈퍼패스트’가 협업해 제작했던 티셔츠 4종을 비롯해 유명 웹툰 작가 ‘기안 84’와의 협업 작품과 국내 최정상 아티스트 25인의 작품을 대규모로 선보인 전시회 ‘하이퍼컬렉션’ 작품을 전시한다.

또 한국엔컴퍼니그룹이 보유한 타이



한국엔컴퍼니 ‘2024 부산모빌리티쇼’ 전시관 조감도

어 테스트 트랙 ‘한국테크노링’에서 모빌리티 기술을 구현하는 고성능 슈퍼카 ‘포드 GT’, ‘부가티 시론’ 차량도 전시한다.

한국엔컴퍼니가 참여하는 ‘2024 부산모빌리티쇼’는 ‘넥스트 모빌리티 세상의 중심이 되다’라는 주제로, 국내외 인기 완성차 브랜드의 신차 및 전기차를 비롯해 친환경 자동차, 슈퍼카, 클래식 등 다채로운 모빌리티 관련 전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에쓰오일, 디지털 전환 메가 프로젝트 본격 운영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에쓰오일이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통해 작업 현장의 안전과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에쓰오일은 지능형 공장 시스템 구축을 위해 추진해온 디지털 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이달 중순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작업자 안전과 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형 CCTV 시스템, 드론(Drone) 등 최신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회사는 온산공장의 운영효율을 높이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지능형 사업장으로 혁신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기반의 S-imoms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S-imoms는 에쓰오일의 통합 제조 운영 관리 시스템을 의미한다.

S-imoms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에쓰오일 공장의 업무 절차를 분석하여 비효율적인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선했고, 작업 효율성 극대화와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사전 감지 및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에쓰오일은 디지털 전환에 기반한 업무 혁신으로 연간 2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차현정 기자】

한화오션, 폴란드서 ‘장보고-III 잠수함’ 기술력 과시

바르샤바 ‘국제 해양 안보 포럼’ 개최
운용 개념·교육훈련 분야 발전안 제시
주요 인사, 전시 부스 방문해 ‘관심’

한화오션이 해군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인 폴란드에 장보고-III 잠수함의 기술력을 과시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20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국제 해양 안보 포럼’에 참가해 장보고-III 잠수함을 알렸다고 24일 전했다. 국제 해양 안보 포럼은 매년 바르샤바에서 개최되는 폴란드 최대 해양 안보 콘퍼런스다.

이날 행사에는 폴란드 해군 현대화에 관심이 높은 방위산업체를 비롯해 폴란드 해군, 방위산업 전문가, 해양 안보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박성우 한화오션 해외사업단 상무가 ‘잠수함 운용 개념 및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한화오션 해외사업단장 정승균 부사장은 주재국 외국 대사, 폴란드 해군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패널 토론에 참여



영국 발족 인터내셔널 국제 부문 총괄 닉 하인 경(왼쪽 두번째), 폴란드 주재 영국 대사 안나 클룬즈(왼쪽 세번째)와 한화오션 정승균 특수선 해외사업단장(왼쪽 네번째) 등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국제 해양 안보 포럼에 참가, 한화오션이 별도 마련한 전시 부스를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했다. 이 자리에서 정 부사장은 현지화 및 기술이전 그리고 수리와 정비 지원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폴란드 해군 측이 갖고 있던 궁금증을 해결했다는 평을 받았다.

아울러 과거 독일에서 잠수함 기술을

도입한 한국이 어떻게 세계 잠수함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폴란드 해군 발전에 기여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행사 기간 중 폴란드 주재 영국

대사와 미국 해군 무관, 폴란드 해군 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등 주요 인사들은 행사장에 마련한 한화오션 전시 부스를 방문해 장보고-III 잠수함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달 폴란드 현지 업체들과 국내

협력 업체들을 초청해 ‘인더스트리 데이’를 열었던 한화오션은 이달 초 현지 방산업체와 함께 ‘폴란드 잠수함 공동 MRO(유지·보수·정비) 계획’을 폴란드 해군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화오션은 폴란드 해군에 향후 30년 이상 운용이 가능한 앞선 기술과 압도적 성능의 잠수함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정승균 부사장은 “오르카 프로젝트는 한-폴란드 양국 간 경제·산업 분야 및 해군 발전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오르카 사업은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향후 해군에서 운용할 잠수함 3척을 새로 도입하는 프로젝트다. 폴란드 정부는 현재 잠수함 도입을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다. 빠르면 7월경 상위 3개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오션은 현재 오르카 사업에서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등 유럽의 잠수함 강호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이노텍, 자율주행 시장 진출

“오는 2030년까지 연간 매출 2兆 육성”

CEO 전담 ‘라이다 사업 담당’ 신설
카메라 모듈 사업 역량 강화 도모
멕시코 3만평 부지 매입해 공장 증설

LG이노텍이 광학솔루션원천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핵심 분야인 자율주행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오는 2030년까지 차량 센싱 솔루션 사업을 연간 매출 2조원 규모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4일 LG이노텍에 따르면 문혁수 대표(사진)는 “모바일 카메라 모듈 사업에서 터득한 일등 성공 방정식을 기반으로, 차량 센싱 솔루션 사업을 오는 2030년까지 연 매출 2조 규모 사업으로 육성해 또 하나의 일등 사업으로 키워 내겠다”고 밝혔다.

LG이노텍은 차량 센싱 솔루션 관련 원천 기술을 보유한 만큼 자율주행 시



라이다(LiDAR) 레이더 등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자율주행 시장에서 최대 관건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으로, 주행에 방해가 될 만한 장애물을 탐지하는 차량 센싱 솔루션에 완성차 업체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에 LG이노텍은 고성능 라이다를 차량 센싱 솔루션 사업의 핵심 축으로 삼고 라이다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초 최고경영자(CEO) 지속 전담 조직인 라이다 사업

담당을 신설했다.

또 다른 핵심축으로 삼은 제품군은 고부가 차량 카메라 모듈이다. LG이노텍은 차량 카메라 모듈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초 대만 AOE옵트로닉스와 지분 투자 계약을 했다.

LG이노텍은 멕시코 생산법인 인근에 3만평 부지를 추가 매입해 공장을 증설하는 등 설비투자도 확대 중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증설된 공장에서 차량 카메라 모듈을 양산한다.

또 차량 카메라 모듈과 라이다를 소프트웨어로 결합한 ‘센서 퓨전’을 앞세워 고객사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화상 회의, 엔터테인먼트, 유아 모니터링 등 차량 내부에서 활용되는 ‘인 캐빈 차량 카메라 모듈’도 개발해 고객에게 제안할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LS전선, 캐나다에 대용량 전력시스템 공급

북미 버스덕트 매출, 年 1억달러 전망

3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LS전선이 캐나다 공장에 전력배전시스템을 공급하며 글로벌 입지를 다진다.

LS전선이 넥스트스타에너지(Next Star Energy)의 캐나다 배터리 공장에 대용량 전력배전시스템 버스덕트(Bus Duct)를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넥스트스타에너지는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Stellantis)의 전기차(EV) 배터리 합작사로, 온타리오주 윈저시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 중이다.

버스덕트는 금속 케이스 안에 관형 도체를 넣어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조립식으로 설치해 전선보다 설치와 이동이 간편하고, 전력 사용량을

LS전선 관계자는 “북미 시장은 대규모의 EV, 배터리,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의 건설로 급성장하고 있다”며 “2030년 북미 버스덕트 매출이 연간 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버스덕트는 특히 AI 산업 발달로 데이터센터 구축이 확대되면서 고성장이 예상된다. 고전력 장비인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인 AI 운영을 지원한다.

LS전선은 기존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기존 LS에코 에너지의 베트남 공장과 멕시코 신규 공장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KT, 전국 통신거점에 100Gbps 전송망 구축

기본비 10배 빨라지고 용량 6배 늘어

KT가 전국 270개 통신 거점을 잇는 전송망을 초당 100기가비트(Gbps)를 보낼 수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로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전송망은 1초당 10Gbps 수준이었다.

국내 통신사가 주요 통신 시설 전체를 100Gbps 급으로 연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T는 전용회선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간거래(B2B) 고객들이 더 빠른 속도로 이용하는 추세를 반영해 전송망의 성능을 올렸다.

새로 구축한 전송망의 속도는 기존보다 10배 빨라졌고, 전송 장비의 용량은 6배 커져 데이터 전송 안정성이 크게 향상됐다. 기존의 노후화된 저속 시설이 줄어 전력 소모량과 탄소 배출량이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KT 권해진 네트워크전략본부장(상



KT의 네트워크 전문가가 새롭게 구축된 100기가급 전송망을 점검하고 있다. /KT

무)은 “이번 구축으로 KT는 국내 최대 규모의 100G 네트워크 기반 차세대 통합 전송망을 통해 기존의 노후화된 전송망을 통합하고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도화로 고객들에게 더욱 향상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혜민 수습기자

KT넥스알-나스미디어, AI 기술특허 공동출원

광고 전환율 2배 높여

KT그룹의 빅데이터 전문기업 KT넥스알은 나스미디어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잠재고객의 행동을 예측해 광고 전환율을 높이는 기술 특허를 공동 출원했다고 24일 밝혔다. 광고 전환율은 광고를 접한 사람 중 실제 구매자의 비율을 뜻한다.

양사가 출원한 기술은 자체 딥러닝을 적용한 알고리즘을 활용해 광고를 본 잠재고객의 전환 행동을 예측한다.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광고를 노출해 전환율을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KT넥스알 직원들이 광고전환율을 높이는 AI 기술을 도입한 나스미디어의 데이터 관리 플랫폼(DPM)을 활용하는 모습. /KT

KT넥스알은 잠재고객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던 중 구매 전환 과정에서 고객이 취하는 특정 행동을 발견해 이를 특허 아이디어로 발전시켰다. 여기에 제품 인지부터 구매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

특히 기술을 탑재한 나스미디어의 데이터 관리 플랫폼(DMP)을 활용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같은 비용을 들였을 때 클릭률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전환율은 기존 핵심 광고그룹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디지털 마케팅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플랫폼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구매 전환율 향상 ▲초개인화 마케팅 강화 ▲효율적인 자원배분 ▲고객 인사이트 등 광고성과 및 매출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혜민 수습기자 hyem@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코스닥 기업, 운영자금 확보 박차 유상증자 규모 전년비 25% 늘어

발행주식 수도 93% 가량 늘어
경기침체·고금리에 실적악화 영향
증시 회복세에 흐름 지속 전망

올들어 코스닥 상장사들의 유상증자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유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스닥 기업들이 증자를 통해 채무상환 등 운영자금 확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연초부터 이날까지 코스닥 상장사들의 유상증자 건수는 172건, 유상증자를 통해 확충한 자본금 규모는 5527억원이다. 건수는 지난해 전체 건수(176건)와 비슷한 반면 자본금 규모는 전년 동기(4436억원) 대비 25%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유상증자를 통해 늘어난 발행 주식 수도 22억9559만5000주로 전년 동기 대비 93% 가량 늘었다.

특히 올해 유상증자를 결정한 기업들의 조달 목적은 대부분 성장과 거리가 먼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조달이다.

앞서 코스닥 상장사 넥스틴은 운영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1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으며, 웨스트라이즈는 18일 운영자금 2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또한 바이오기업 셀리드는 총 175억원의 자금 조달을 위해 지난달 24일 주



서울 여의도 증권가의 모습.

/손진영 기자 son@

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하나마이크론도 지난달 17일 시설·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1125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처럼 유상증자 증가 추세는 경기 침체·고금리 여파로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코스닥 상장 1464개사의 1분기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각각 3.98%, 15.02% 감소했다. 부채비율 또한 59.55%로 전년 말(57.49%) 대비 2.06%포인트 상승했다.

코스닥업계 한 관계자는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면 비용 부담이 커지지만 유상증자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금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이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자금 조달이 시급한 코스닥 기업들이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조달 등을 위해 유상증자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초 대비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코스닥 상장사들의 유상증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증시 상승 시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향이 증가한다”며 “주가가 상승할 때 기업의 주식 가치는 더 높아지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통해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해 유상증자에 대한 참여율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영일만 신항만 개발 ‘최대 수혜’ 전망

株라클라의 종목 세방

적정주가 2만2150원 제시
석유 가능성, 긍정적 영향

독립리서치리서치알음은 24일 세방에 대해 4조6000억원 규모의 포항 영일만 신항만 개발 정책에 석유 발견 뉴스까지, 물동량 증가로 인한 최대 수혜를 전망했다. 추가전망 ‘긍정적’, 적정주가는 2만2150원을 제시했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정부의 항만개발 및 물류 강화 정책은 세방이 보유한 포항 영일만 항만 시설의 가치와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전망이다”이라며 “특히 포항 영일만에서의 석유 발견 가능성은 물류와 운송 수요를 급증시켜 동사의 물류 네트워크와 항만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방은 2020년 12월 포항 영일만항에 물류센터를 개장했

며, 울산, 부산 등지에도 물류거점을 보유하고 있어 상당한 수혜가 예상된다. 이는 부연이다.

세방은 1965년 설립된 항만하역 및 화물운송 사업자로 1977년 코스피에 상장됐다. 하역을 비롯해 항만 사용, 유류 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어 해운업 상승이 예상된다. 세방은 이미 컨테이너 운송 공급량 증가로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리서치알음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IFRS) 2024년 세방의 실적은 매출액 1조3873억원, 영업이익 423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5%, 47.9% 성장한 수치다.

최 연구원은 “컨테이너 운송 사업 부문에서 10% 이상의 성장세가 기대된다”며 “중속기업 가운데 세방 데탈트레이딩(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거래), 세방익스프레스(컨테이너해상운송, 항공운송)의 고성장으로 예상한 실적 달성에 무리가 없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삼성증권, 연금자산 빠른 성장세... 17兆 돌파

8월 말까지 퇴직연금 모바일채권 행사

삼성증권의 연금 자산이 17조원을 돌파했다.

24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삼성증권 연금 자산은 2022년 6조9000억원에서 2023년 11조8000억원, 2023년 15조3000억원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금 고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연금 자산 증가로 이어졌다고 삼성증권 측은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연금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삼성증권 연금센터를 운영 중이며 연금전문 상담 인력들이 연금운용 및 세금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류 작성성이 간단한 정보만으로 DC 계좌 개설이 가능한 ‘삼성증권 3분 DC’, 국내 최초로 IRP 내 관리 수수료를 없앤 ‘다이렉트 IRP’를 선보였다.

더불어 삼성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Samsung POP)을 통해 연금 관련 제도에서 추천 상품에 이르는 다양한 디

지털 콘텐츠를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공해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유튜브 라이브 세미나와 매월 현장에서 진행되는 연금세미나는 고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삼성증권은 타사 대비 높은 ‘AA+’ 신용등급(한신평)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들이 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며 “올 들어 모바일을 통한 퇴직연금 채권매매 서비스를 제공해 운용 편의성을 증대한 데다 업계 최다 120여 개의 채권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퇴직연금(DC, IRP) 고객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모바일채권’ 이벤트를 8월 말까지 진행한다. 삼성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앱팝(mPOP)’의 ‘퇴직연금 채권매매’ 메뉴를 이용해 DC·IRP 계좌에서 채권을 처음 매수하는 고객에게 커피쿠폰과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원관희 기자

미래에셋운용 “나스닥·월배당 상품 ‘종지부’”

美나스닥100+15%프리미엄초단기ETF
초단기옵션 전략 활용으로 차별화
韓 인기 많은 ‘AI·은퇴’ 키워드 담다

“월 분배형 상품 경쟁이 치열한데 TIGER 미국나스닥100+15%프리미엄초단기 상장지수펀드(ETF)가 ‘종지부’를 찍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준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부회장)는 24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센터원 발딩에서 열린 TIGER 미국나스닥100+15%프리미엄초단기 ETF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상품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상품은 25일 신규 상장되며 상장 규모는 1000억원으로 국내 상장된 커버드콜 ETF 설정액 중 최대다.

이번 ETF는 나스닥100 지수를 기반으로 ‘초단기옵션 전략’을 활용한 것이 기존 커버드콜 ETF와의 차별점이다. 콜옵션 매도비중을 약 10% 이하로 줄였고, 나머지 90%는 나스닥100 지수 상승에 참여하도록 설계됐다.

미래에셋운용은 해당 상품에 ‘+프리미엄’ 전략을 활용한다. 이 전략은 목표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옵션 매도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을 취한다. 초단기옵션 전략은 만기가 짧은 옵션을 매일 매도에 프리미엄을 쌓는 전



이준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이 24일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센터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TIGER 미국나스닥100+15%프리미엄초단기 ETF’를 소개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략이다. 이를 통해 기초지수의 연평균 배당수익률에 각각 일정 비율을 더한 만큼의 배당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다.

이준용 전략ETF 운용본부장은 “초단기옵션과 옵션 매도 비중 최소화를 통해 주가가 상승할 때 오르지 못하고 하락할 때는 똑같이 내리는 커버드콜 상품의 손익 비대칭성 한계를 보완했다”며 “초단기옵션 타깃 프리미엄 전략을 통해 시장 성과의 90% 이상을 추종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월배당 커버드콜 시장의 성장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이슈와 연결했다. 은퇴를 앞둔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추구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는 의미다.

이준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 운용본부 본부장은 TIGER 미국나스닥100+15%프리미엄초단기ETF에 한 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2가지 키워드(AI·은퇴)가 담겨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ETF가 추종하는 나스닥100은 과거의 혁신과 미래의 혁신을 모두 담고 있는 유일한 투자상품”이라며 “기술 중심 주요 섹터에 투자하는 상품 이기에 ‘포스트 엔비디아’도 이 안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승자인 엔비디아와 미래에 워너가 될 기업에 투자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TIGER 미국나스닥100+15%프리미엄초단기ETF까지 출시하며) 투자자들의 온 생애를 통틀어 나스닥100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라인업을 모두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준용 부회장은 “안정적으로 지켜져야 할 노후를 위한 월배당 ETF 투자는 분산이 잘돼 있는 대표지수 상품 중심으로 선택하고 비용 등을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ETF만의 노하우로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NH투자증권, 해외부동산 서비스 강화

코로나 코리아와 업무 제휴 체결
고객자산가 투자 니즈 선제 대응

NH투자증권이 미국 부동산 종합 솔루션 플랫폼사인 코로나 코리아와 해외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제휴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NH투자증권과 코로나 코리아의 업무제휴 협약식은 지난 21일 NH투자증권 본사에서 개최됐다.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Premier Blue) 본부는 고객자산가 자산관리에 특화된 본부로서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자산가의 해외부동산 투자 니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적인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맞춤형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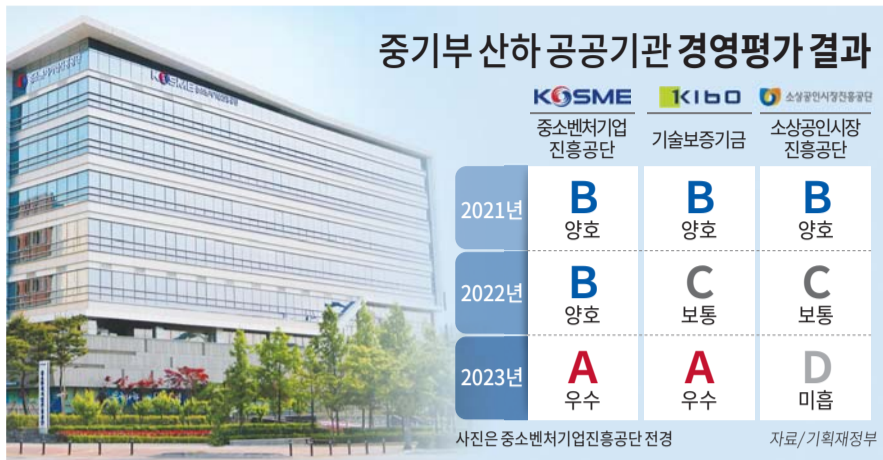
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최근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해외에서 거주하는 고객자산가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NH투자증권 측은 “미국 경제 활황에 따라 자산가들의 달러 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해당 업무협약을 통해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미국 유학 중인 자녀의 거주지 마련을 위한 뉴욕 콘도 투자, 겨울철 휴양을 위한 하와이 별장 투자, 사내 유보자금을 활용한 미 서부 지역 골프장 투자자문 등 고객자산가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자문을 지속적으로 수행 중이다. /허정윤 기자

“가득이나 연봉도 적은데”... 경영평가 나빠 성과급도 남의 일

중기부 산하 ‘부익부 빈익빈’ 심화
기보·중진공, 직원연봉 8000만원 ↑
‘우수’ 등급, 직원들 성과급 80%
소진공, 평균연봉 5000만원 수준
‘미흡’ 받아 올해 성과급은 ‘제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기관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특히 살림살이가 넉넉치 않은 기관이 기획재정부의 이번 평가에서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그나마 기대했던 성과급도 바라볼 수 없게 됐다.

24일 기재부, 중기부, 각 기관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2023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이 ‘우수(A)’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미흡(D)’을 각각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가장 높은 탁월(S)부터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까지 총 6단계로 등급을 매긴다.

지난 2021년도 평가에선 중진공, 기보, 소진공 모두 ‘양호(B)’를 받았다. 이듬해인 2022년도엔 중진공이 ‘양호

(B)’, 기보와 소진공이 각각 ‘보통(C)’이었다.

전년 대비 2023년도 평가에서 중진공은 한 단계, 기보는 두 단계 등급이 오른 반면, 소진공은 오히려 한 단계 하락하며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린 모습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성과는 중진공 임직원 모두가 합심해 만들어낸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과 민간주도 성장기반을 마련해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이같은 여세를 몰아 올해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 혁신 ▲민간주도 혁신성장 기반 사업 혁신 ▲고객중심의 공공서비스 혁신을 중

심으로 한 ‘3대 혁신방안’을 적극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영평가는 기관에겐 사활이 걸린 문제다. 기관장이 좀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인 평가위원들에게 어떤식으로든 호소하는 게 아재, 오늘이 일이 아니다.

특히 평가 결과에 따라 주어지는 성과급은 공공기관에 다니는 임직원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꼽힌다. 임원들은 더욱 그렇다.

중진공, 기보, 소진공과 같은 준정부 기관의 경우 기관장과 상임이사·감사는 등급에 따라 기본연봉 대비 60~0%까지 성과급이 돌아간다. 이번에 ‘A(우수)’ 등급을 받은 중진공과 기보 이사장

은 기본연봉의 48%를 보너스로 받을 수 있다. 이들 기관 직원에겐 월기본급의 80%가 성과급으로 주어진다.

기보 관계자는 “전년에 비해 두 계단 올라간 것에 대해선 내부에서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성과평가실을 중심으로 조용히 자축하고 넘어가자는 분위기”라고 귀뜸했다.

하지만 이들 기관과 달리 ‘D(미흡)’를 받은 소진공은 올해 경영평가 성과급이 없다. D와 가장 낮은 E등급은 지급률이 ‘제로(zero)’이기 때문이다.

전년도에 ‘보통(C)’을 받았던 소진공은 지난해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이사장에게는 약 4400만원이, 직원들에게는 1인당 평균 96만원이 돌아갔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 ‘소상공인 지원’ 역할을 톡톡히 한 소진공은 중기부 산하 11개 기관 중 연봉 등 처우가 가장 낮은 기관으로 꼽힌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소진공 정규직 1인당 평균 연봉은 5121만원으로, 기보(9371만원)의 54.6%, 중진공(8419만원)의 60.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소진공 입장에서 가득이나 연봉도 낮는데 경영평가도 좋지 않은 결과를 받

아든 것이다.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소진공의 열악한 현실이 조명되면서 기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급히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진공 관계자는 “경영평가 결과를 받아들이고 내부에서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면밀한 원인 분석 등을 통해 기관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대전에 있는 소진공은 지난 주말 중구에 있던 본부를 유성구 지족동 KB국민은행 콜센터 건물로 옮기고 이번주부터 새 터전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기존에 있던 낡은 건물을 떠나 임직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고, 이전을 통해 아낀 경비를 직원 복지 향상에 쓰겠다는 원대한 목표에서 단행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은 소진공이 원도심을 등지고 떠난다며 ‘몽니’를 부리기도 했다.

한편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감사 직무수행실적도 함께 평가한 결과 기보는 ‘우수(A)’를 받은 반면 중진공은 ‘미흡(D)’에 그쳤다. 소진공은 해당사항이 없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CJ대한통운, 물류 혁신기술 교류 나서

제8회 TES 글로벌 워크숍
4개국 계열사 임직원 145명 화상회의

CJ대한통운이 글로벌 계열사들과 물류 혁신기술 교류에 나섰다.

CJ대한통운은 첨단 물류 기술 기반의 글로벌 성장 가속화를 위한 제8회 TES 글로벌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워크숍에는 CJ대한통운 본사를 비롯해 CJ 로지스틱스 아메리카(미국), CJ 다슬(인도), CJ제마텍(베트남), CJ센추리(말레이시아) 4곳의 글로벌 계열사 임직원 145명이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했다.

TES 글로벌 워크숍은 TES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국내 본사의 선진 물류기술을 해외 법인에 전파하고 글로벌 계열사 간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TES 마스터플랜은 CJ대한통운의 기술(Technology), 엔지니어링(Engineering), 시스템 및 솔루션(System&Solution)을 기반으로 자동



CJ대한통운 임직원들이 글로벌 계열사 관계자들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제8회 TES 글로벌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CJ대한통운

화, 최적화, 지능화를 위해 설계한 중앙기 로드맵이다.

이번 워크숍에선 특히 해외 주도 프로젝트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법인은 콜드체인으로 영역을 확장한 새로운 창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규 사업 기회를 창출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 AI 기반 디바이스로 작업자가 피킹할 제품의 위치를 쉽게 파악해 시간과 비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AI

비주얼 피킹 솔루션을 소개했다.

인도에선 1200개 이상의 비즈니스 데이터를 시나리오화한 수송관리시스템 2.0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CJ다슬은 인도 1위 수송 기업으로, 배차, 차량 관리 등 수송 관련 다양한 기능을 모듈화해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현지 인력과 협업해 기술을 지속 개발함으로써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중견-중소기업간 상생형 성과공유 확산

대중기협력재단-KIAT, 업무협약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기협력재단)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중견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형 성과공유 확산을 위해 나섰다.

대중기협력재단은 KIAT와 지난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상생협력

형 기술혁신 확산을 위한 성과공유 지원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대중기협력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성과공유제’와 KIAT가 운영 중인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사업’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상생협력형 기술혁신 확산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KIAT 사업에 선정된 중견·중소기업은 성과공유제에 참여해 과제수행으로 발생한 성과를 기업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해 공유할 수 있다.

KIAT 과제를 통해 발생한 기술개발 성과에 대해 중견기업(위탁기업)과 중소기업(수탁기업)이 현금 또는 물량·매출 확대 형태로 성과를 배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김승호 기자

중기중앙회, 새만금 개발사업 팔 걸었다

전북특별자치도 등과 업무협약

중소기업중앙회가 전북 새만금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기중앙회는 24일 오전 베스트웨스턴 군산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BS산업과 함께 ‘새만금 개발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김만겸 BS산업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전북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한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및 중소기업계 참여(중기중앙회)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전북도 및 군산시)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 추진 제반사항 이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천(BS산업) 등이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 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김승호 기자

R&D 우수 중소기업 규제혁신 방안 논의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대전 제조기업 리베스트 방문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연구개발(R&D) 우수 중소기업을 찾아 애로를 청취하고 규제혁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보는 김 이사장이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24일 유성구에 있는 플렉시블 배터리 제조기업인 리베스트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리베스트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연구개발부터 설계·제조 및 품질관리까지 가능한 R&D 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CES 혁신상을 수상하고 중소기업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대표기업에 선정되는 등 플렉시블 배터리 제조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김승호 기자



김종호 기보 이사장(왼쪽)이 김주성 리베스트 대표와 연구시설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기보

기보는 리베스트의 기술력 및 혁신성장성을 높게 평가해 알바트로스 보증, 벤처투자연계 보증을 지원했다. 또 R&D 우수성과기업이 데스밸리(Death-Valley) 기간을 극복하고 성장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김승호 기자



서울의 한 마트에 진열된 김치들.

/뉴스스

절임염수 재활용으로 김치제조 年 1억 절감

농식품부, 13개 김치제조사 선정
여과장치 등 설비 구축 비용 지원

정부가 2024년도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사업' 수행 대상자로 김치제조업체 13개소를 선정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는 김치제조 시 필수 재료인 소금류의 수급 불안 및 가격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김치제조업체의 원가 절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절임염수 재활용에 필요한 여과장치를 비롯해 오존처리장치 등 시설 구축 비용(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등을 정부가 지원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가격정보에 따르면 굵은소금 가격(상품/5kg)은 지난 2021년 8038원에서 2022년 1만535원, 2023년 1만1993원으로 뛰었다.

국내 상품김치 시장은 맞벌이 부부

증가 등에 따른 편의를 추구하는 소비패턴 변화와 해외에서의 발효·비건 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수요 증가로 내수·수출 모두 성장 추세다. 그러나 소금류를 포함한 원재료 비용 상승 등으로 많은 김치제조업체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재활용 설비 구축을 통해 절임염수를 최대 20회까지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용수 및 소금류 투입비용은 44%, 폐수 처리비용은 5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를 통해 연간 약 40%(절임염수 20톤/일 재활용 시설 기준, 약 1억 원 절감)의 염수비용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절임염수 재활용 시설 구축 지원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치제조업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김치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비 촉진 및 원료수급안정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배달종사자, 무더운 날에도 안전모 써야

고용부 여름철 안전위한 수칙 마련
배민·쿠팡이츠 등 가이드 확산 협조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배달종사자의 여름철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수칙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여름철배달종사자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와 '배달종사자를 위한 호우·태풍 안전수칙 가이드'를 제작·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배달종사자들은 무더운 날에도 야외에서 안전모를 쓰고 있어야 하고 비가 오면 미끄러운 도로 위를 운행해야 해서 여름철 건강과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가이드를 통해 폭염, 호우·태풍 시 배달종사자와 플랫폼 운영사가 지켜야 할 조치를 그림 등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QR코드를 찍으면 쉼터 위치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는 주요 플랫폼 운영사에 배포해 확산할 예정이다. 특히 유아한정년(배달의민족), 쿠팡이츠서비스,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 등이 가이드 내

용의 이행·확산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플랫폼 운영사는 가이드 내용을 업무용 앱을 통해 상시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또 종사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자가 점검하고, 적절한 휴식 시기를 알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와 운행시간 정보 등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배달의민족은 7월 말부터 배달종사자에게 커피 트럭을 지원하고, 쿨링 보호구 등 휴식기 안전 물품을 무상 지급한다. '쿠팡이츠서비스'는 호우·태풍에 대비하여 이륜자동차 안전 점검과 소모품 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요기요는 배달종사자에게 편의점에서 생수를 교환할 수 있는 기프트콘을 제공할 방침이다.

최태호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직무대리는 "올여름은 많이 덥고, 비도 자주 내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배포하는 가이드가 배달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운행을 위한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캠코, 1488억 규모 저축은행 부실채권 인수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 지원
SPC 유동화 사채 786억 인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1일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 저축은행 부실 브릿지론 및 토지담보대출을 기초자산 발행 유동화 사채를 인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저축은행 부실채권 인수 지원은 최근 저축은행의 지속적인 연체율 증가 등에 따라 여신 건전성 제고 및 부

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20개 저축은행 및 유동화 전문회사(SPC)는 지난 5월 24일에 약 1488억원 규모의 고정이하 부실 브릿지론 등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입대금 마련을 위해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총 1048억원의 유동화 사채를 발행했다.

캠코는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발행한 유동화 사채 가운데 약 786억 원의 선순위 유동화 사채 전액을 인수하

고, 후순위 유동화 사채는 민간 부실채권(NPL)펀드가 인수해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이 신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중국 캠코 부동산금융안정지원단은 "캠코의 신속한 자금 투입을 통해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채권을 적기에 정리할 수 있었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금융회사 등의 건전성 제고를 통해 국민경제에 안정을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공정위, 신임 사무처장 남동일·조사관리관 육성권 임명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새 사무처장에 남동일 경쟁정책국장(54), 조사관리관에 육성권 사무처장(57)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남동일 신임 사무처장은 제2회 지방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경쟁정책국장과 소비자정책국장,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특히 공정위의 주요 정책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했으며 최근에는 공정거래 분쟁 관련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을 추진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국민 생활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남 처장은 대변인과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등



남동일

신임 공정위 사무처장

육성권

신임 공정위 조사관리관

을 역임하며 사무처장으로서 필요한 대내외적인 소통 역량을 길러왔다"며 "앞으로 정책 분야에서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육성권 신임 조사관리관은 1005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대변인과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국장 등을 맡았다. 시장감시국장 재직 시 이동통신 3사

의 5G서비스 속도에 관한 거짓·과장·과대·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했다. 기업집단국장 때에는 삼성 사내급식 계열사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하림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제재 등 주요 사건처리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학 전문성과 풍부한 사건부서 근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사건 전체를 총괄하게 될 조사관리관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날 임기 3년의 신임 비상임위원으로 오규성 변호사(46)를 위촉했다. 오 신임 비상임위원은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17년 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AI 등 최첨기술 활용 디지털 경제교육

기재부, '경제배움e+' 운영 시작
맞춤형 콘텐츠 제공 플랫폼 개편

정부가 운영 중인 온라인 경제교육 플랫폼에 인공지능(AI) 기술이 탑재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AI 등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경제정보 및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온라인 경제교육 웹사이트 '경제배움e'를 운영해 왔다. 최근 들어 경제교육 필요성 확대에 따른 이용자 수 증가, 최신 정보기술 적용 및 보다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이

용자 요구가 많았으며, 이에 경제교육 주체들의 콘텐츠를 모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신규 플랫폼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회원가입 시 관심 분야를 선택하면 AI 기술이 그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 AI가 최근 학습 콘텐츠와 유사 콘텐츠를 추천해 주고, 매월 해당 분야의 콘텐츠를 '뉴스레터'로 제공한다.

이 플랫폼은 이용자가 필요한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간결한 초기화면과 주요 메뉴로 구성했다. ▲초기화면은 이용자의 관심 분야에 맞춰 콘텐츠를 추천하는 '최신

맞춤형 콘텐츠' ▲주간·월간 조회수가 많은 '인기 콘텐츠' ▲주제별(14개)·교육 대상별(학생·사회초년생·군인 등)로 '추천 콘텐츠' 등으로 구성했다. 또 맞춤형 알고리즘의 연관 콘텐츠도 제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아울러, 14개의 대분류와 80여 개의 소분류 등 콘텐츠 분류체계를 새로 정비했다. 최신 검색엔진을 통한 연관어 검색 기능도 제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개통과 함께 경제교육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 러닝 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플루언서들과의 협업 콘텐츠, 예능형 시리즈, 레트로 경제이야기 등 약 30여 편의 영상물도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2024 고용허가제 우수사례 공모전

고용부-산업인력공, 내달 4일까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월 4일까지 '2024년도 고용허가제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23년에 이어 우수사례를 발굴한다. 접수된 사례는 내·외부 전문가 심

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8월 내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 시상식을 개최하고, 사례 발표를 통해 고용허가제의 방향성과 우수성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수사례 공모전의 최우수상 수상작은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장려상은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원, 30만원이 각 수여된다. '우수사업장분야'의 출품 대상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 경

험이 있거나 채용 중인 국내 사업장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업장 사례, 외국인 근로자 복지 및 정착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업장 사례 등의 주제로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 근로자 분야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해 직장 생활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출품할 수 있다. 출품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중요 업무를 맡은 사례,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간 감동적 스토리가 있는 사례 등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제출하면 된다.

/신하은 기자 godhe@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후카후카스튜디오]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기후위기에 식량안보 중요성 커져 “100년의 미래, 성실히 준비할 것”



한국농어촌공사가 필리핀 이사벨라주에 건설한 파사담의 모습.

한국농어촌공사

인구감소 및 기후위기 등의 여파로 식량안보의 중요성과 농어촌공간에 대한 가치가 최근 급부상했다. 이에 따라, 국내 농업·농어촌의 조력자 역할을 맡아 온 한국농어촌공사의 정책적 행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 3월에는 농촌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공간으로 변신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제정됐다.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위기 등에 대응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숲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 회복을 지향한다.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공사를 농촌공간재구조화 중앙지원기관 총괄기관으로 선정했다. 공사는 특화기관으로 지정된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 3개 기관과 함께 농촌공간 정책 발전을 위한 시책 발굴에 나서게 된다. 또 농촌공간정책 조사·연구, 시·군 농촌 공간 중장기계획 수립 등 농촌 재생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에 착수한다.

지자체가 농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유형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법 시행에 따라 농촌지역 139개 대상 시·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공사는 시범 계획 대상지의 기본계획을 분석하고, 유형별 세부 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를 마련해 전국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신규 정책을 빠르게 확산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중앙·광역·기초단체의 전문정책 지원기관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운영한다. 또 지역의 여건과 특색을 살린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농촌마을보호 ▲산업 ▲축산 ▲농촌융복합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등 농촌특화지구를 7가지로 세분화한다. 이를 통해 토지이용체계를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설 준비의 수준을 넘어 농촌공간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재배치한다. 농촌의 미래를 미리 내다볼 수 있는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농어촌공사는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자리하고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그리는 어촌의 미래

공사의 지역개발 경험과 전문성은 농촌뿐 아니라 어촌 지역에서도 빛을 발한다. 공사는 지난 2009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제 본격적인 어촌개발 전담 기관으로서 어촌공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속발전 가능한 어촌·어항 개발 및 공사의 역할’이라는 과제를 시작으로, 공사는 36개의 정부·자체 연구과제 등을 수행해 어촌·수산·해양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높였다.

최근 어촌지역 개발에 대한 사업영역을 크게 확장했다.

특히, 최근에는 어촌을 다시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국내 300개 지역 대상이다. ▲어촌경제플랫폼 조성 ▲어촌생활플랫폼 조성 ▲어촌안전인프라 개선 등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27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주거·의료·문화·교육 등의 생활 수준을 도시 수준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어촌경제플랫폼조성사업’으로 계획된 강원 고성 공현진행에는 R&D센터, 복합생활센터 등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복합 플랫폼을 조성한다. 또 호텔·컨벤션 등 4558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사업과 연계해 공현진의 수산업과 경관자원, 민간의 휴양·레저산업을 융합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공간재구조화 중앙지원 총괄기관으로 선정 139개 대상 시·군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시설 정비 수준 넘어 종합적으로 계획·재배치

300곳 대상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역량 집중 도시 수준으로 생활 개선… 휴양·레저산업 성장 친환경 첨단기술 시스템 적용, 수산업 경쟁력 ↑

농림 ODA 사업 극대화 관리체계로 글로벌 선도 아프리카서 ‘K-라이스벨트’ 발굴·확산 도모

이 밖에,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첨단기술 시스템을 적용한 ‘내수면 양식 단지 조성사업’과 ICT 등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지능화된 대규모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대규모 양식시설과 수산산업 집적화가 가능한 간척지를 미래 수산 양식산업 발전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목표다.

또 ‘간척지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종합계획에 따라, 공사는 충남 당진 석문지구 간척지에 오는 2028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최첨단 양식단지(친환경 수산종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수산식품 생산·저장·가공·유통을 한데 묶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 같은 단지 조성을 위해 해수부·당진시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간간 벼 재배 등 농업적으로 이용했던 간척지의 다양한 활용을 촉진하고 수산양식분야 신성장 동력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해외 식량확보 지원·K-농업기술 세계화의 든든한 플랫폼

공사의 첫 해외 진출은 지난 1967년 베트남에 수리·농업 전문기를 포함한 18명의 ‘주월한국농업사절단’의 파견이다. 오랜 전쟁에 시달려 온 베트남 농민들에게 식량 증산 기술을 전수하고 교육훈련을 제공한 바 있다. 이후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발주한 베트남 메콩 델타 지역 5만 5000헥타르(ha)에 대한 농업개발사업을 수주하면서 본격적으로 해외사업에 뛰어들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사업은 이제 해외 곳곳에서 K-농업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공사는 농림 공적개발원조(ODA) 관계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다양한 융합 사업을 발굴하고, 농림 ODA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 왔다. 또 농업·농촌 개발 수요가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기술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국가 정부와 국제기구로부터 사업을 수주해, 세계 무대에서 농업생산기반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아프리카 대륙 7개국(가나, 세네갈, 케냐, 카메룬, 우간다, 감비아, 기니)에서 K-라이스벨트 사업을 발굴했다. 사업 추진에 공사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다시 한번 해외사업에 대한 저력을 입증했다. 특히, 단일 프로젝트를 묶은 프로그램형 사업을 추진해 공사의 기술력을 확장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가나·세네갈 등 5개 국가에 ODA 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사업을 밀착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마다가스카르와 말라위, 앙골라, 짐바브웨 등 남아프리카 4개국과 추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K-라이스벨트의 확산을 이끌 계획이다.

공사는 해당 국가가 직접 달성하기 힘든 사업을 국제기구를 통해 추진하는 ‘다자성양자사업’을 농식품부 산하기관 중 최초로 추진해 ODA 사업의 영역도 확대했다. 오는 2028년 K-라이스벨트 사업 종료에도 농촌 개발, 농기공·유통 등 신규사업을 기획해 지속적인 ODA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약 8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 민간 기업의 해외농업 진출 저변을 확대한다. 기존에 추진해 온 국내의 기업의 교류 지원 형태를 탈피한다. K-농업기술 수출 확대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이른바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추진한다. 국내와 다른 자연환경, 예측하기 힘든 변수 속에서 개발기술의 해외농업 현장 적응을 돕는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어촌이 당면한 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할 것”이라며 “공사가 지니는 100년의 경험을 토대로 100년의 미래를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한국농어촌공사가 구상 중인 변모한 어촌마을의 한 가상 풍경



국내 농어촌지역에 들어설 뉴타운의 한 예시

/농어촌공사

신동주 “신유열, 능력 검증 안돼”... 이사선임 반대 예고

내일 日 롯데홀딩스 정기 주총
신동빈 이어 신유열 견제하는 듯
신동주, 주주제안서·질의서 제출
본인 이사선임, 신동빈 해임 안건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0번째 이사회 복귀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전무의 롯데홀딩스 이사 선임 안건을 반대할 의사도 내비쳤다. 경영 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신동빈 회장뿐만 아니라 신유열 전무의 견제가 시작됐다는 후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오는 2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이사 복귀 안건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회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일 롯데그룹의 경영 방향성이 중요한 현 시점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합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전무



2020년 울산시 울주군 둔기리 롯데별장에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노제를 시작하기 위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별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뉴스시스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악화로 롯데홀딩스 전체의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으며, 자회사들에서 신동빈이 받은 과도한 임원 보수가 문제가 되고 있기에, 지금은 경영감시기능이 결여된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전면적인 쇄신이 요구되는 때”라고 지적했다.

신 전회장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운사의 주주로 ‘롯데 경영 정상화’의 일환으로 롯데홀딩스 이사회에 주주제안서와 사전 질의서를 제출했다.

해당 주주제안서에는 ▲본인의 이

사 선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회장은 “13년간 국내 5대 그룹 자리를 지킨 롯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계 순위 6위에 머무르는 등 그룹 전체가 침체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오랜 세월 회장직을 지낸 신동빈 회장의 경영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신동빈 회장은 그룹사 여러 책임자에게 단기적

경영실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인사 교체했지만, 이제 바뀌어야 하는 것은 신동빈 회장 자신이다”고 꼬집었다.

쉽게 말해 신동빈 회장을 대체해야 할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날 신 전 회장은 롯데그룹의 지속되는 경영 악화에 대한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책임과 입장을 묻는 사전 질의서도 함께 제출했다. 내용에는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 ▲시가총액 감소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에 대

한 책임 ▲한국 롯데그룹 재무 건전성 악화에 대한 책임 등이 포함됐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이번 신동주 회장의 신유열 전무 롯데홀딩스 이사 선임 반대표 및 주주제안과 관련해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 회사대표로서 롯데의 위기 상황에 대해 묵과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주총에서 신 전 부회장의 복귀 안건 표결이 이뤄질 경우 10번째 신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간 표대결이 펼쳐지게 된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주총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 회장의 해임과 자신의 이사진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소매점에서 상품 진열 상황을 촬영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이른바 ‘폴리카’ 사업을 강행한 이유로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일본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이사직에서 해임된 바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hy, 신선 커피 브랜드 ‘하이브루’ 론칭

로스팅 후 10일 이내 추출 원액 사용
카페라떼·아인슈페너 등 3종 출시

hy가 ‘신선커피’를 지향하는 신규 커피 브랜드 ‘Hybrew(하이브루)’를 론칭한다고 24일 밝혔다.

하이브루는 로스팅 후 10일 이내 추출한 커피 원액을 사용하고 프레스 매니저와 콜드체인 시스템을 통해 배송 마지막 단계까지 신선도를 유지한다. 신제품은 총 3종이다.

‘하이브루 오리진 콜드브루’는 인공첨가물 없이 아라비카 원두 3종(에티오피아·콜롬비아·브라질 생산)에서 추출한 커피원액과 물만 사용해 만든다. SDP(S



uper drop Process)공법을 적용해 콜드브루 특유의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하이브루 카페라떼’는 콜드브루와 핫브루, 2가지 추출 방식을 적용한 정통 라떼다. 설탕과 합성감미료를 넣지 않은 무가당 제품으로 라떼 본연의 깊은

풍미를 즐길 수 있다. 크림 커피 ‘하이브루 아인슈페너’도 선보인다. RTD 제품으로는 국내 최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디저트 대용으로 좋다.

패키지에는 방탄소년단의 앤솔러지 앨범 ‘Proof’ 로고를 사용했다. hy는 2018년부터 방탄소년단의 라이선스를 자사 커피 제품에 적용해 판매 중이다.

신제품은 전국 프레스 매니저와 hy 온라인몰 프레딤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롯데웰푸드, 신입사원 채용 인턴전형 접수

내달 1일까지 영업지원 등 6개 직무

롯데웰푸드는 다음달 1일까지 신입사원 채용 인턴 전형 접수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영업지원(제과) ▲영업관리(푸드) ▲경영관리 ▲교육 ▲법무 ▲재무 등 6개 직무다.

인턴 전형 지원서 접수 기간은 7월 1일 오후 5시까지다. 지원자격은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2024년 8월까지 취득 완료)다.

해외 여행 및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남성은 군필, 혹은 면제자의 국가유공자여야 한다. 직무별 자격 요건은 채용 공고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전형 절차는 ▲서류접수 ▲서류전형



롯데웰푸드 사옥 전경. /롯데웰푸드

▲인성진단 ▲면접전형 ▲건강검진 ▲인턴실습(4주) ▲전환평가 ▲최종합격 순이며 롯데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롯데웰푸드는 1967년 롯데그룹의 모회사인 롯데제과로 설립된 이래 오랜 역사 동안 다양한 제품으로 국내 제과 산업을 이끌어왔다. /신원선 기자

현대백, 더현대 대구서 ‘기안84’ 개인전

내달 5일부터 ‘기안도 플로팅 온 대구’

현대백화점이 웹툰 작가로 유명세를 떨친 아티스트 ‘기안84’의 개인 전시를 연다.

현대백화점은 내달 5일부터 8월 4일까지 더현대 대구 9층에서 기안84의 제2회 개인전 ‘기안도(奇案島·기묘한 섬) 플로팅 온 대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가 인생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주제로 총 30여 점의 그림을 선보인다. 대표 작품으로는 홀로 늙어가는 인구가 많아지는 사회 현상을 담아낸 ‘기안도’, 사랑받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그린 ‘빛나는 자화상’,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의 속도감을 얼음으로 재



해석한 ‘시간 시리즈’ 등이 있다. 또한, 큐빅을 활용한 작품인 ‘빛나는 반러인 시리즈’, 사랑에 대한 작가의 고찰을 나타낸 유화 ‘사랑2024’ 등 기존 전시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던 신작도 전시된다.

이와 함께 내달 19일에는 작가가 직접 전시 작품을 설명해주는 도슨트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오후 6시 30분과, 7시 30분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참가 인원은 오는 28일까지 전시 티켓을 구매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SSG닷컴 ‘6월 끝-장보기’ 행사

SSG닷컴이 오는 27일까지 나흘간 ‘6월 끝-장보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원하는 시간에 받아볼 수 있는 ‘쓱배송’ 상품을 비롯한 인기 장보기 상품을 최대 50% 할인 또는 N+1 혜택과 함께 선보인다. 인기 신선품 반값 기획전을 진행하고, 주요 가공식품과 음료는 구매 수량에 따라 증정 또는 할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삼푸, 치약 등 생필품 행사도 전개한다.

‘알뜰 장보기’를 테마로 마련한 행사인 만큼, 활용도 높은 식재료와 이를 이용한 요리도 함께 제공한다. 양배추, 두부, 당면, 차돌박이 등이 대표 상품이다. /최빛나 기자

하이트진로, 티엠알파운더스에 지분 투자

테이블 오더 시스템 ‘태그히어’ 운영

하이트진로는 테이블오더서비스 타트업 ‘티엠알파운더스’에 지분을 투자했다고 24일 밝혔다. 티엠알파운더스는 테이블 오더 시스템 ‘태그히어(Tag here)’를 운영 중이다.

태그히어는 스마트폰 NFC(근거리 무선 통신) 기능을 기반으로 한 테이블 오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도의 하드웨어 설치없이 간단한 태그만으로 편리하게 개인 모바일에서 메뉴를 직접 주문할 수 있다.

태그히어는 고가의 기기 설치 비용 및 설치공간 확보, 배터리 충전 등 테이블 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기존 테이블 오더가 가진 단점을 보완했다.

그 결과 지난 해 9월 론칭해 서비스 초기 단계임에도 90만명 이상이 태그히어를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티엠알파운더스는 2025년까지 7000개 매장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테이블 오더 시장이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티엠알파운더스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높이 평가해 투자를 결정했다. /신원선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식품관에 선 호텔 셰프... 백화점, 미식 레스토랑 변신

Q 르포 | 롯데호텔 서울 '푸드 밸리 인 소공' 팝업스토어

롯데백화점 본점 식품관에서 팝업 운영 요리 등 실제 호텔급 서비스 제공 가격 아쉬워... "부담되는 것은 사실"

"호텔 음식이라 하면 좀 비싼 것 같은 생각도 있고 셰프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드는 음식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빨리 빨리 만들어지고 판매되어야 하는 백화점 식품관에 팝업 매장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백화점에서 맛보는 호텔 서비스였다. 23일 오전 11시 경에 방문한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 1층 식품관. 호텔을 방불케 하는 한 식품 팝업 매장이 운영 중이었다. 하얀색 유니폼을 입은 셰프들과 검은색 유니폼의 제품 안내 직원들이 어우러져 한 눈에 보였다.

빠른 손놀림으로 고기를 썰고 있는 셰프들과, 모든 방문 손님에게 음식을 안내하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까지 팝업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고객 서비스에는 실제 호텔에서 받는 서비스와 같은 친

절함과 정갈함이 묻어 있었다. 이곳을 찾은 시민 최모씨는 백화점 팝업 전시관에서 호텔 음식이 판매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모습이였다.

롯데호텔 서울은 14일을 시작으로 28일까지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 1층 식품관에 '푸드 밸리 인 소공'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일식, 중식, 양식 그리고 디저트 등 호텔의 셰프가 직접 만드는 다양한 메뉴를 제공한다.

깔끔하게 진열돼 있는 디저트들도 눈에 들어왔다. 롯데호텔 서울 내에 입점해 있는 델리카한스의 디저트들이 눈에 띄었다. 바닐라 타르트 위에 망고가 올라간 망고타르트, 초코케이크 위에 크림브뤼레로 장식된 산마르크, 먹으면 레몬 맛이 한 입 가득 퍼지는 레몬 몽블랑까지 세 가지의 종류의 디저트들이 진열됐다. 팝업 매장 내 델리카한스 디저트 3종을 한꺼번에 구매하면 5%의 할인이 제공된다.

롯데호텔 서울 셰프들이 직접 요리한 먹음직스러운 음식들도 일렬로 진열돼



롯데호텔 서울 '푸드 밸리 인 소공' 팝업관 (원형사진) 팝업 스토어에 진열된 음식

/안재선 기자

있었다. 매장에는 민물장어 덮밥, 후토마끼, 유린기, 중새우 칠리소스, 라자나 등이 진열돼 있었다.

매장 관계자에 따르면 가장 잘나가는 것은 민물장어 덮밥, 후토마끼 그리고 유린기였다. 민물장어 덮밥에는 장어가 한 마리 반이 들어갔으며, 후토마끼에는 장어와 새우가 어우러져 있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음식을 고른 후 계산하는 과정이었다. 먹고자 하는 음식을 고른 후, 직원에게 구매하고자 하는 음식의 종류를 말하면 번호가 적힌 열쇠고리 형태의 키가 부여된다. 기다렸다가 차례가 되면 이 키를 바탕으로 음식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음식 계산 시스템은 마치 룸키를 내고 호텔 입구에서 체크아웃을 하는 호텔 시

스템을 연상케 한다.

다만 호텔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높은 가격대는 소비자가 쉽사리 접근하기 어려운 진입장벽으로 다가왔다.

현장에서 음식을 맛본 시민 김모씨는 "호텔 음식이라 어느 정도 감안은 하지만, 가격적 측면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안재선 수습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KT&G, '릴 에이블 2.0' 선보

일시정지·고속충전 등 신기능 추가 릴 미니멀리즘 6개소에서 우선판매

KT&G가 기능과 디자인 면에서 풀체인지된 권련형 전자담배 '릴 에이블 2.0'을 26일 출시한다.

릴 에이블 2.0은 디바이스 하나로 '리얼', '그레놀라', '베이퍼 스틱'의 3가지 종류 스틱을 즐길 수 있는 기존 모델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차별화된 흡연감을 제공하는 2가지 새로운 사용 모드를 적용해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밸런스 모드는 균일한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클래식 모드는 강한 임팩트를 느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일시 정지' 기능도 새롭게 추가됐다. 디바이스 사용 중 한 개비당 최대 2분 내에서 1회 정지가 가능하다. 예열시간은 클래식 모드 기준 27초로 기존 모델 대비 20% 이상 단축됐다. '고속 충전' 기능도 적용돼 40분 내에 5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스틱 삽입과 동시에 자동 예열되는 '스마트온', 디바이스 내부에 스틱 잔여물이 남지 않는 '청소 불



KT&G, 편의성·디자인 강화된 풀체인지 '릴 에이블 2.0'

편 해소'의 장점도 유지된다.

이번 신제품은 더 콤팩트해진 사이즈에 곡선형 외관을 적용해 손에 잡히는 그립감을 향상시켰다. 디바이스 전면에는 컬러 디스플레이를 구현해 배터리 상태와 잔여모금수 등 기기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품 색상은 '코튼 블루', '코지 버건디', '스페이스 블랙', '삼페인 골드' 총 4가지이다.

릴 에이블 2.0은 26일부터 릴 브랜드 전용 매장인 '릴 미니멀리즘' 6개소에서 우선 판매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정관장, 황희찬 페스티벌서 홍삼톤 홍보

홍보부스 운영... 룰렛 이벤트 등 진행

정관장이 홍삼톤 앰버서더로 활약중인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 풋볼 페스티벌 현장에서 홍삼톤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정관장은 지난 22일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황희찬 풋볼 페스티벌에서 홍삼톤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풋볼 페스티벌에 방문한 팬들에게 홍삼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

홍삼톤 홍보부스는 정관장과 23-24 울버햄튼 어웨이 유니폼 색상인 레드로 구성했으며, 내부에는 황희찬 선수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월로 디자인됐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홍삼톤을 구경할 수 있도록 제품들도 전시됐다.

홍보부스에서는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룰렛 이벤트'를 비롯해 스텝퍼를 활용한 '달리기 이벤트', 'SNS 업로드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참여한 팬들에게는 홍삼톤 제품과 황희찬 선수 굿즈를 경품으로 증정했다.

황희찬 선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홍

삼을 먹고 경기를 뛰었을 때 골을 넣었던 경기가 많았다"며, "그 때부터 홍삼을 루틴처럼 경기 전에는 꼭 챙겨먹고, 훈련 전에도 챙겨먹는다"고 자기 관리 비결을 밝혔다.

23일 황희찬 선수는 멘토링 및 팬미팅을 진행하여 멘토링에 참여한 유소년 축구선수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삼톤 류 제품을 후원하기도 했다.

홍삼톤은 1993년 출시된 정관장 스테디셀러 브랜드로 홍삼농축액에 여러 생약재를 배합한 복합 한방 제품이다. 최근에는 1년에 100만세트가 판매되며 10년간 누적 매출이 1조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정관장 홍삼정과 홍삼정 에브리타임에 이어 많은 매출 기록이다.

대표 제품인 '홍삼톤 골드', 프리미엄 제품인 '홍삼톤 리미티드', 그리고 환절기 건강을 위한 '홍삼톤 청' 등의 다양한 제품을 갖췄다. 최근 정관장은 세분화된 소비자 니즈에 충족하고자 현대인의 누적된 피로 개선을 위한 '홍삼톤 류'를 출시하면서 라인업을 강화했다.

/신원선 기자

신제품

아모레퍼시픽 헬로키티 워터뱅크 젤 크림

아모레퍼시픽이 헬로키티의 귀여운 특성을 살린 기획으로 국내외 Z세대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



아모레퍼시픽은 헬로키티 50주년을 맞아 '라네즈 x 헬로키티 워터뱅크 젤 크림' 한정판(사진)을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라네즈 x 헬로키티 워터뱅크 젤 크림'은 제품 용기에 열대 꽃을 단 헬로키티 모습을 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해당 제품 구매 시 수영복을 입고 서핑보드와 함께 있는 헬로키티 키링도 제공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한정판 제품을 무신사 온라인 스토어에서 선보인다. 이후 올리브영 및 다양한 이커머스 채널로 출시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애경산업 리큐제트 프로 트리플샷 리프레시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이 세탁세제 제품군을 확장한다.

애경산업은 고급 세탁세제 브랜드 리큐제트에서 '프로 트리플샷 리프레시'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애경산업에 따르면, 리큐제트 '프로 트리플샷 리프레시'는 실내 건조 기능을 갖춘 캡슐세제다.

특히 해당 제품은 냄새 원인물질 중 하나인 피지 오염을 비롯해 음식물 잔여 등 각종 생활 얼룩을 강력하게 세탁한다.

아울러 찬물에도 쉽게 녹는 프리미엄 필름을 적용하고 아쿠아 프레시향도 더해져 세탁 후에는 청량함과 상쾌함을 경험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교촌에프앤비, 美 직영점 조리로봇 도입

연내 3대 설치... 양산 테스트 진행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씨)가 전용 조리 로봇을 활용한 가맹점 운영 효율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내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운영 중인 미드윌셔점(1호점)과 로랜하이츠점(3호점) 등 직영 점포 2곳에 해당 로봇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24일 밝혔다.

교촌에프앤비 글로벌미주·신사업부 문 미주운영개발팀에 따르면 미국 미드윌셔점은 2대, 로랜하이츠점은 1대를 발주했으며, 빠르면 연내 설치 및 양산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촌은 지난 2021년 로봇 제조기업 '뉴로메카'와 업무협약을 맺고 교촌치킨 전용 치킨 조리 로봇을 개발해 가맹점 조리 자동화 및 운영 효율화를 도모해 왔다.

/신원선 기자

에이피알, 600억 규모 자사주 매입

신탁기관 NH투자증권... 전망 소각

글로벌 뷰티테크기업 에이피알이 주주 친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6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에이피알은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해 NH투자증권을 신탁기관으로 선정했다. NH투자증권은 오는 12월 23일까지 에이피알 자사주를 취득하게 되며 이번 신탁계약으로 취득

된 주식은 전망 소각된다.

에이피알은 이번 자사주 취득 배경으로 현재 실적,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자신감 등을 꼽았다.

에이피알은 올해 1분기 미국에서 지난 2023년 동기 대비 196.4%의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중국 시장에 진출한 에이피알의 뷰티 디바이스 '부스터 프로'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해 36억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광고 심의필 : 2022-1626-0014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대한민국에 이런 겔 하나쯤 있어야지!

국민의 겔! 남궁민의 겔! 록소안겔



테니스·골프 엘보우엔 **록소안겔**

테니스 엘보우 주요 증상

- *팔꿈치 통증, 특히 주부들에게 발생
- *팔과 손목을 쓰는 동작에서 통증



- 테니스 엘보우
- 손, 손목 통증
- 어깨 통증
- 근육통, 관절통
- 타박상, 염좌(뺨)
- 요통



캠코, '일가양득 아이사랑 TF' 본격 운영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저출산 및 생산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캠코 일(業)가(家)양(養)득(得) 아이사랑TF'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권남주(앞줄 왼쪽 세번째) 캠코 사장 등 노사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캠코



넥슨, 대한민국 어린이대상 '최고의 착한기업상'

넥슨은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지난 21일 주최한 '제4회 대한민국 어린이대상'에서 어린이가 뽑은 '최고의 착한기업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정옥 넥슨 대표이사(가운데)가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넥슨



신한금융그룹, '안전동행 릴레이' 봉사활동 실시

신한금융그룹이 2024 글로벌 원 신한(Global One Shinhan) 자원봉사대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안전동행 릴레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임직원 및 가족 80여명은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위한 경량 리아카 및 안전 키트(아광 조끼, 아광 팔토시, 폭염 안내문 등) 제작하고, 어르신들에게 전하는 응원 편지를 작성했다. /신한금융그룹



GS칼텍스, '엔지니어 리더십 프로그램' 성료

GS칼텍스는 지난 3월부터 6월 21일까지 16주間に 걸쳐 성공관대, 전남대, 중앙대, 한양대 등 4개 대학 화공학부생 7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 엔지니어 리더십 프로그램'이 성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엔지니어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화공 전공 학부생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GS칼텍스



청호나이스, '환경사랑 어린이 바둑축제' 성황

청호나이스는 지난 23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청호인재개발원에서 '2024 청호나이스 환경사랑 어린이 바둑축제'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 및 보호자 약 700명이 참가해 그동안 쌓아온 바둑실력과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다양한 환경사랑 이벤트도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청호나이스

양희영, LPGA 메이저대회 제패... 올림픽 출전 '청신호'

KPMG PGA 챔피언십 우승
세계랭킹 15위권 진입 유력

양희영(35)이 데뷔 17년 만에 생애 첫 미국 여자 프로골프(LPGA) 메이저대회 첫 우승과 동시에 파리 올림픽 출전이 유력해졌다.

양희영은 24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주 서매미시 사할리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LPGA 투어 시즌 세 번째 메이저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총상금 104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3개, 더블보기 1개로 이븐파 72타를 쳤다.

양희영은 첫날 선두에 2타 뒤진 공동 4위로 출발했고 둘째 날 공동 1위에 나섰다. 그리고 셋째 날 2타 차 단독 선두에 오르면서 최종합계 7언더파 281타의 성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양희영은 2008년 데뷔 후 처음으로 메이저 우승에 성공했다.



양희영이 2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주 서매미시의 사할리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PMG 워민스 PGA 챔피언십 정상에 올라 공을 들고 트로피와 함께 기념 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1989년생인 양희영은 2012년과 2015년 US여자오픈 준우승이 개인 최고 성적이었다. 이번 우승으로 한국 선수의 메이저대회 우승은 2022년 전인지 이후 양희영이 통산 36번째다.

올 시즌 개막 후 부진을 거듭하던 양희영은 이번 대회에서 완전히 다른 선수처럼 맹활약했다.

대회 기간 단 한번도 오버파 스코어를 적어내지 않았는데, 이는 양희영과 엘리 유잉(미국) 둘밖에 없다.

2타 차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양희영은 1번 홀(파4)을 시작으로 5번 홀(파3), 8번 홀(파4) 버디로 경쟁자들을 일찌감치 따돌렸다.

10번 홀(파4)에서 1타를 잃었지만 11번 홀(파5)과 13번 홀(파3) 버디로

찍기를 바꿨다.

양희영은 16번 홀(파4)에서 파 퍼트를 놓치고, 17번 홀(파3)에서 2타를 잃었지만 3타를 앞선 채 나선 18번 홀(파5)을 파 퍼트로 마무리하며 우승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이후 7개월 만에 우승한 양희영은 LPGA 투어 통산 6승을 쌓았다. 또 우승 상금 156만 달러(약 21억 7000만원)를 챙기면서 상금랭킹도 92위에서 3위로 꺾중 뛰어올랐다.

내달 개막하는 2024 파리올림픽 출전권 획득도 유력해졌다.

파리올림픽 여자 골프 출전권은 한국 시각으로 25일 발표되는 주간 세계랭킹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15위 이내에 들면 국가 당 4명까지 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 현재 25위인 양희영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15위 이내 진입이 유력하다.

/최규준 기자 ch9720@metroseoul.co.kr

광동제약, '제13회 광동 암학술상' 수상자 발표

국민 건강증진 기여한 연구자 지원
이병헌·임채홍·김정선 3인 영예

광동제약이 국내 암 연구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들을 지원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광동제약은 대한암학회와 함께 '제13회 광동 암학술상'을 시상했다고 24일 밝혔다.

광동제약과 대한암학회는 지난 2012년 '광동 암학술상'을 공동으로 제정하고 매년 국내외 SCI(과학기술 인용색인)급 학술지에 우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병헌 경북대 교수, 임채홍 고려대 교수, 김정선 국립암센터 교수

올해 수상자는 이병헌 경북의대 생화학교실 교수, 임채홍 고려대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김정선 국립암센터 암역학연구과 교수 등 3명이다. 이병헌 교수는 기초의학 분야에서, 임채홍 교수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정

선 교수는 다수 논문 발표 부문에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암학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됐다. 이날 수상자들에게는 부문별로 각 5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다. /이청하 기자 mlce236@

롯데백, '밋업 데이' 개최

롯데백화점이 '밋업 데이 2024'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손잡고 유망한 스타트업에 발굴해, 제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행사다.

공식 밋업 데이는 2022년 이후 올해가 세 번째다. 롯데백화점의 상품 군별 담당 바이어가 나서 창업한 지 7년 미만의 스타트업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올해 밋업 데이는 다음달 19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다. 다음달 5일 오후 6시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최빛나 기자 vitna@

서울시교육청, 학부모 임원 만남다

내일 '서울교육 혁신' 주제 토론회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6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초·중·고·특수 학교 학부모 임원 100여명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교육 혁신을 향한 10년, 내 삶을 바꾼 서울 교육 정책'을 주제로 열린다. 주요 서울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교육감과 학부모의 소통 창구 확대 및 학부모들의 교육주체로서의 학교참여 동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시교육청은 서울혁신미래교육 10년을 맞아 학부모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도적 배움과 성장을 위한 서울교육(1주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서울교육(2주제)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든 서울교육(3주제) ▲가고 싶은 학교,

넓어지는 서울교육(4주제) 등 주요정책에 대해 사전 설문 조사를 실시해 영역별 인지도와 중요도를 확인했다. 이를 기반으로 조희연 교육감과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 학부모와 교사 대표가 함께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서울교육 전반 및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급 학교 학부모 임원 대표들이 지난 서울교육 10년의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원탁토론회도 진행된다.

/이현진 기자 lhj@

인사

◆**법제처** ◇고위공무원 승진 △행정법 제국 법제심의관 유철호 ◇부이사관 전보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은하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1과장 공은정

◆**보건복지부** ◇국장급승진 △첨단의료지원관 고희우

◆**기획재정부** ◇과장급 △연금보건

제과장 배성현

◆**서울시교육청** ◇지방이사관(2급) △정독도서관장 엄동찬

부음

▲이천란씨 별세, 윤희석(전자신문 기자)·송희씨 모친상, 안주희씨 시모상, 이승환씨 빙모상 = 24일, 충남 보령시 대대로 258-9 Sh수협장례식장 동백,

발인 26일, 041-932-4004

▲정영애(호심학원 광주대학교 상임이사)씨 별세, 김민호(전 인성고등학교 이사장)·김진(전 광주대학교 교수)씨 모친상, 김동진(광주대학교 총장)씨 조모상, 송숙남(광주대학교 패션주얼리디자인학부 교수)·신윤정(전남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부 대학원 겸임교수)씨 시모상 = 24일, 광주 VIP장례타운 VIP301호, 발인 26일 오전 7시30분, 062-521-4444

HD현대

울산 HD FC 스탬프 투어

HD현대가 울산 HD FC 팬들과 함께 K리그1 3년 연속 우승을 염원하는 스탬프 투어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팬들은 이번 시즌 남은 원정경기를 직접 관람하면 경기당 1개의 스탬프를 받는다.

HD현대는 획득한 스탬프 개수에 따라 기념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백대성 수습기자 iurmds@

이스타항공

'쿨비즈 캠페인' 전개

이스타항공이 임직원의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캠페인을 시행한다.

이스타항공은 24일부터 3개월간 쿨비즈(Cool-Biz)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일반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더운 여름철, 반바지와 샌들 등 자율 복장 착용을 허용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올해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임직원 건강과 항공기 안전 운항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백대성 수습기자

불투명한 서부선 개통에 서울시민 “市에서 예산 확보해야”

서부선 착공 예산 확보 민원 제기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협상 필요” 자영업 출산급여 대상 확대 요구도

서울시민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부선 예산 확보, 자영업자 출산급여 대상 확대 등을 요청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정과 관련된 비전을 제시하는 창구 ‘시장에게 바란다’에 서부선 사업 착공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달라는 민원이 최근 제기됐다.

민원인 A씨는 “서부선 착공에 서울시의 의지가 있는 건지 궁금하다”며 “50억원이 큰돈은 맞지만, 서울시가 그 정도가 부족해 착공이 안 되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부선 경전철사업은 은평구 새절역(6호선)~여의도~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 총연장 16.15km 구간에 정거장 16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노선 계획 변경 등으로 목표 개통 시점이 2017년에서 2028년으로 미뤄졌으나, 사업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문제로 여

전히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시도시 교통실은 지난 4월 30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와 민투자사업자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50억~60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지난 2023년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 심의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 컨소시엄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 교통정책과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되는 본 사업의 특성상 민투심 의견에 대해 협상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상정해야 함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완료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자영업자 출산급여대상을 확대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는 7월 출산 예정인 부인을 둔 서울시민 B씨는 “만삭인 와이프는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다”면서 “서울시에 자영업자 출산급여라는 좋은 정책이 있는 것

같아 기쁜 마음에 찾아보니 1인 자영업자에 한정돼 있었다”면서 “직원을 고용 중인 자영업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빠진 이유를 모르겠다. 여유가 있어서 직원을 고용한 것이 아닌 정말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을 수 없기에 무리해 고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시는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사업으로 올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부터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출산급여 90만원을 지원한다. 또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가정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제공한다.

시 양성평등담당관은 “1인 자영업자뿐 아니라 고용원이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출산이나 육아시 휴가 또는 휴직의 개념을 적용받지 못해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따라서 시는 내년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공공자전거 따릉이 누적이용 2억건 ‘코앞’

운영대수 4.5만대, 대여소 2700곳
이용건수, 2010년 대비 300배 증가

서울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누적 이용 건수가 1억9000만건에 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하루 평균 따릉이 이용 건수는 지난 2010년 413건에서 작년 12만건으로 약 300배 증가했다. 지난달 기준 누적 이용 건수는 1억9000만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민 1명당 따릉이를 20번가량 이용한 셈이다.

따릉이 운영 대수는 시범 운영 시기였던 2010년 440대에서 현재 4만5000대로 102배 늘었다. 동 기간 대여소는 44곳에서 2700곳으로 61배 넘게 증가했다.

오세훈 시장은 캐나다 공공자전거 시스템 ‘빅시(BIXI)’에서 착안해 2010년 따릉이 440대를 시범 도입했고, 2015년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공공자전거 이용 수요를 파악하



따릉이 이용 모습. /서울시

기 위해 서울연구원과 따릉이 이용 데이터를 분석했다. 지난 2019~2023년 월별 따릉이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동절기인 1~4월 이용 건수가 2019년 334만건(17.5%)에서 작년 1177만건(26.2%)으로 3.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따릉이의 주중 이용 건수는 2.5배, 주말은 2.1배 증가했다. 2019년과 2023년 모두 주중에는 오전 8~9시보다 저녁 6~7시 이용이 많았다. 주말에는 오후 5~6시에 따릉이를 가장 많이 타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정 기자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본다

11월, 초·중·고교 10만명 대상 실시 참여 학교 500개교… 2배 이상 늘어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학생 10만명을 대상으로 문해력·수리력 검사를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미래역량 함양을 위해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올해 500개교 약 10만명의 학생이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초·중·고교 210곳에서 약 4만 5000명의 학생이 참여했지만, 올해는 이보다 2배 이상 늘어 500개교에서 약 10만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

사’는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미래역량 함양을 위하여 시교육청에서 서울시의회와 지원을 받아 2023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검사 도구이다. 이는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기초 소양인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할 수 있는 범교과적 검사 도구로 개발됐다는 점에서 교과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기초학력 진단 도구와는 차이가 있다.

시교육청은 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소양교육 지원 협업체 운영 ▲문해력·수리력 신장 위한 지도자료 개발 보급 ▲수업 역량 강화 연수 운영 ▲방과후학교 기초 문해력·수리력 프로그램 개설 ▲학습지원대상 학생 위

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진단검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기간동안 학교 일정을 고려해 학년 또는 학급별로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이달 24·25일 양일간 왕십리 디노체 컨벤션에서 초·중등 시행학교 및 진단검사에 관심 있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2024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에는 미래학력의 기초소양으로서의 문해력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전문가 특강이 마련된다. /이현진 기자 lhj@

“경기바다 해양레저, 할인 받고 즐기세요”

경기도, 관광상품 최대 30% 할인

경기도는 해양레저관광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받아 즐기는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상품을 오는 25일부터 온라인으로 본격 판매한다.

‘지원받아 즐기는 경기바다’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김포, 안산, 화성, 시흥, 평택의 바다 또는 인근에서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 관광 및 체험 상품을 최대 30%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상품이다.

경기도는 지난 4월 도내 해양레저스 포츠, 관광업체, 어촌체험마을을 대상

으로 설명회를 열고 23개 관련업체를 ‘경기바다 해양레저 네트워크’로 구성했다. 또 업체 간 대표 프로그램을 엮은 다양한 해양관광상품 개발과 경기바다 홈페이지, SNS 등 매체 홍보 및 판로 개척 등 지원방안을 모색 중이다.

상품 내용은 주로 시흥 및 제부도 등 경기바다 일대에서 요/보트, 서핑, 제트보드 등의 해양레저기구 체험과 서해량 해상케이블카, 선셋투어, 어촌체험 등 해양관광 프로그램 등이며, 상품은 경기바다관광 해양레저통합포털기 획전 페이지를 이용하거나, 11번가 또는 쿠팡에서 ‘경기바다’를 검색해 구입할 수 있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이번주 ‘기로’

이번주서울시의회 사정 전망 시교육청 “가결 시 대법원 제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이르면 이번 주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가 오는 25일과 28일 각각 본회의를 열고 상정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될 수 있

다는 관측이 나온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4월 26일 ‘제323회 서울시의회’에서 재석 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월 재의를 요구하면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김현기 의장이 이달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자신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의회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할 경우,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시의회 다수당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이기 때문이다. 정원 112명 중 75명이 국민의힘, 36명이 민주당이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확정된다.

조교육감은 시의회에서 조례폐지안을 또 가결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까지 조례 폐지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안건 처리는 다음 회기인 9월로 미뤄지게 된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2 | 해질 / 19:57

6월 25일(화) 음력 : 5월 20일

수도권 날씨 19~2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5/28, 동두천 16/28, 가평 15/28, 파주 15/28, 서울 19/27, 양평 16/27, 인천 19/24, 수원 19/26, 용인 19/26, 평택 17/27, 백령도 18/2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인도 “대중관계 정상화에 국경지대 평화가 가장 중요” /사진 뉴시스
▲美합참의장 “이란, 헤즈볼라 지원할 것”…이스라엘에 경고

▲한미일 “러북 군사협력 심화,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 공동성명
▲中 중견 부동산업체 카이사 청산 심리 7주 연기



▲日스가 전 총리도 기시다 퇴진 압박… “새 리더 나와야”
▲젤렌스키 “서방 무기로 러시아 내 공군기 타격 허용해야” /사진 뉴시스



日 롯데호텔스 주총
신동주 회장
신유열 이사선임 반대
니



Life

롯데호텔 서울
백화점 식품관서
팝업스토어 운영
L2



가족친화문화, 탄소중립 실현... '내일의 차이' 만드는 녹색금융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현대차증권

현대차증권은 국내 증권사 중 유일하게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인 한국ESG기준원(KCGS) ESG 평가에서 4년 연속 통합 'A 등급'을 획득하는 등 녹색금융을 선도하고 있다. S(사회)항목 평가에서는 2019년 A등급을 받은 이후 4년간 한 단계 높은 'A+'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중 다수의 기업이 사회공헌에 집중하는 ESG 경영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현대차증권은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경영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

◆지속가능경영 위해 '기업문화' 탈바꿈

현대차증권은 권위주의 타파, 소통 기반 제도 수립, 사내 소통 채널 다양화로 직원과 회사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복지제도에 힘을 실고 있다. 가족 참여 프로그램 확대, 콘텐츠 다양성 확보 등 '즐거운 조직문화'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2022년 증권업계 유일 3회 연속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는 3일 근무 형태를 다양화하는 워크스마트 플랫폼 '내일의 차이' 제도를 개시했다. '내일의 차이'란 명칭은 현대차증권 브랜드의 슬로건 '내일의 차이'를 응용해 지어졌다. 기존 연장근무나 휴가신청 등의 절차를 개선한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근무 형태인 반반차제도와 뉴(NEW)재택근무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설됐다. 반반차제도는 기존 반차제도를 더 세분화해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혹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시간 중 선택해 두 시간 단위 연차를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뉴재택근무는 감염병 예방과 같은 목적 외에도 업무 특성에 따라 자택에서 처리가 가능한 업무에 대해 재택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최병철 전 현대차증권 사장은 취임 첫 해부터 ESG 경영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왔다. 취임 직후였던 2020년 3월에는 ESG 총괄 전담부서를 지정해 전사 ESG 기획·정책 수립 등을 총괄하도록 조직화시키기도 했다. 이후 2020년 8월, 전사 단위 협의 조직 'ESG 협의회'를 운영해 추진 체계를 확립했으며, 2021년 ESG 중점추진전략을 수립했다. 'ESG 투자 다변화·확대, ESG 리서치 경쟁력 확보, ESG 리스크 통합 관리, ESG 운영 개선'이라는 4대 전략 방향을 설정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개선을 추진해왔다.

아울러 2021년에는 ESG 투자 원칙 제정 및 교육·사내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 임직원들의 내재화에도 힘쓰고 있으며, 2022년에는 이사회의 다양성 강화를 위해 정기 주



지난 1월 현대차증권이 임직원 참여 원데이클래스 연계 사회 공헌 기부 활동인 '이른둥이를 위한 따뜻한 마음키트 전달식'을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26일 배형근 현대차증권 사장(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이 내 주니어 직원 중심 회의체인 CLB(Change Leader Board) 직원들과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증권

ESG평가 4년간 통합 'A등급' 획득
반반차·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도입
여가부 인증 '가족친화기업' 선정도

탄소중립 위한 녹색금융 실현 지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美 LACP 대상

임직원, 이른둥이 위한 '마음키트' 전달
지역 아동센터 봉사 등 사회공헌활동도



'현대차증권 2023 지속가능경영 보고서'가 미국 '비전 어워즈'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주총회에서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2023년 3월 현대차증권의 첫 여성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종실 전 KB국민은행 경영자문은 현재 현대차증권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기 만료는 2025년 3월까지다.

올해 3월 취임한 배형근 현대차증권 대표이사도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당시 배 대표는 "계속기업 지위 유지를 위해 새로운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며 "수익구조 다변화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등 친환경 투자확대를 통해 녹색금융을 강화하는 등 ESG경영도 더욱 내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재생에너지 등 녹색금융 선택
현대차증권은 증권업 본업과 연계된 ESG 활동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 수소 등 녹색금융을 실현할 수 있는 분야를 지원한다.

2019년부터 태양광·풍력 발전 인프라 사업 투자, 금융자문 주선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에도 힘을 쓰고 있으며, 2020년에는 현대자동차, 수소에너지, 새만금개발청 등과 '그린 수소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21년에는 배출권 거래시장 회원 자격을 취득했으며, 배출권 매입 등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통해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을 갖고 있다. 당시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플랜트 건설 사업에 각각 금융자문사와 금융주관사로 참여하는 등 수소 지원 사업에 적극성을 보였다. 2022년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및 운영 사업에 투자하기도 했다.

ESG 리서치 보고서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2019년 'ESG in-depth(인텔스)'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총 16건의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ESG 리서치 고도화 및 ESG 투자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K-T taxonomy(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탄소배출권 등이 주제로 다뤄졌다.

또한, 지난해에는 창사 두번째로 발간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해당 보고서에 현재·미래 경쟁력을 읽기 쉽게 풀어내고, 지속가능경영 세부 영역별 거버넌스, 전략, 위험·기회, 목표, 성과를 수록했다. 그 결과 본 보고서는 미국 LA CP(League of American Communications Professionals) 주최 '비전 어워즈'에서 2년 연속 대상(Platinum)을 수상했다.

◆임직원들의 따뜻한 사회공헌까지

현대차증권은 지난 1월 서울에 위치한 이대서울병원과 이대목동병원에서 '이른둥이를 위한 따뜻한 마음키트 전달식'을 열고 지난 한 해 총 4차례 진행한 임직원 참여 원데이클래스와 연계한 사회공헌 기부 활동을 마무리했다. 현대차증권 원데이클래스는 임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친환경 레고 플라워 꽃다발', '나전칠기 자가공예 손거울', '크리스마스 미니트리' 등 자체 제작 키트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이번 사회공헌 기부 활동의 재원이 됐던 마음나눔통장 또한 임직원 기부금과 회사 후원금을 일대일로 매칭해 사회공헌 기금을 마련한다. 마음나눔통장은 출시 1년 만에 월간 1200만원이 넘는 기부 금액이 모집됐으며, 지난해에는 연초 목표 대비 126% 초과 달성했다.

이외에도 '내일의 차이'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내걸었던 '같이 만드는 문화(Culture)의 차이'라는 신규 사회공헌활동 슬로건을 바탕으로 ▲농촌일손돕기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사랑 나눔 바자회 ▲사랑의 김치 Fair(페어) ▲사랑의 연탄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상생의 가치를 공감하는 많은 임직원들이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구성원과 가족이 참여하는 참여형 사회공헌을 지속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현대차증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사이영상 3회 투수' 서저, 복귀전서 5이닝 무실점 쾌투
▲샌디에이고 김하성, 3경기 연속 안타
...시즌 타율 0.220 /사진 뉴시스

▲'전차군단' 독일, 스위스와 1-1 무...
유로2024 A조 1위로 16강 진출
▲울산 설영우, 세르비아 즈베즈다 이적
...황인범과 '한술밥'



▲PGA 투어 대회 준우승 김주형, 세계 랭킹 16위로 10계단 상승 /사진 뉴시스
▲2024 코리아컵 국제남자배구대회 내달 13일 개막

시에 바라는 게 있나요?

"세상의 모든 질병,
거침없이 날려버려!"

LG의 AI기술은
건강한 삶 속에서 모두가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
AI연구로 신약개발의 속도를 높여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
이주영 선수

미래,
같이

다 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만들기,
LG가 함께 하겠습니다.



0101 0 01001 0100 10101 0101 0 0100 0100 0101 010 1 1 0 0101 010 1 1 0
0 011001001 0 011001001 0 0110 0 0001100 0 0101011 1 1 0 01 011 0 1
0 011001001 010 1 0 0 0110 0 0001000 011011 0 1 011 00